

성평등 지도 위 우리가 연결될 때

한국여성재단은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 가는 여성·시민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여
사람들을 모으고 소통하며 성평등한 미래를
설계하는 데 함께합니다.

한국여성재단은 모든 이가 평등하고 존엄한 사회는 다양한 위치성을 가진 여성과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가시화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고 믿습니다.

성평등을 지향하는 여성·시민단체들의 현장 활동들은 거대한 생태계를 이루며 우리 사회를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재단의 고유목적사업인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2014년부터 2025년까지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그간 단체들이 만들어온 지원사업을 여덟 가지 범주로 재구성해 어떠한 변화의 여정을 걸어왔는지 되짚어보고, 앞으로 만들어 갈 성평등 세상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책자는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내용과 의미를 통합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재단의 파트너 단체들과 또 다른 파트너인 기부자들을 위한 안내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한국여성재단

* 이 책자는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한 보고서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2014~2025) 성과와 발전방안 연구'의 별책입니다. 단체들이 제출한 개별사업의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최종보고서, 재단이 발간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연 단위 결과보고서, 그 외 단체 활동가 대상 심층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정리하였습니다.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이란

“여성을 비롯해 우리 사회의 모든 사회적 약자들이 더 이상 성, 인종, 계급, 나이 등으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나아가 돌봄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여성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여성재단 고유 핵심목적사업”

- 2013년 성평등사회조성 사업 결과보고집 -

“여성운동이 필요 없는 그 날까지 여성운동을 지원하는 한국여성재단 고유목적사업”

- 2011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결과보고집 -

“한국여성재단의 성평등사회조성지원사업은 단순한 사업비 배분의 합이 아니라, 한국 페미니즘 운동의 ‘변화 인프라(change infrastructure)’를 구성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인프라는 새로운 의제가 사회적으로 호명되는 통로이자, 새로운 운동 주체가 양성되는 토양이며, 영역과 영역, 세대와 세대, 지역과 글로벌이 서로 연결되는 연결고리(node)이다.”

-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2014~2025) 성과와 발전방안 연구 -

content

실천의 재구성 : 함께 만든 변화의 기록들	6
01. 아젠다 세팅 : 사회적 의제로의 전환	8
02. 젠더 담론의 확산과 전복 : 주류 담론의 균열	20
03. 차세대와 신생 인큐베이팅 : 여성운동의 다음 세대를 키우다	30
04. 문화예술·미디어·스포츠 : 일상의 언어로 성평등을 말하다	37
05. 교차성 : 차이를 넘어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44
06. 지역과 글로벌 : 어디서든 어디까지든 풀뿌리에서 국제 연대까지	59
07. 활동가 역량 강화와 네트워킹 : 운동을 지속하게 하는 힘	67
08. 기록과 아카이빙 : 기록되지 않은 것은 역사가 될 수 없다	73

실천의 재구성

함께 만든 변화의 기록들

이 장은 한국여성재단이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통해 지원한 단체들의 활동을 여덟 가지 범주로 재구성한 기록이다. 구체적 사례들은 단체들의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재단의 연 단위 결과보고서, 활동가 심층인터뷰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사업 목록의 나열이 아니라 현장에서 축적되어온 변화의 흔적들을 몇 가지 흐름으로 연결해 읽으려는 시도이다. 이를 통해 단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만들어온 변화를 통합적으로 가시화함으로써, 그 변화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깊고 넓게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성평등 운동의 성과는 단일한 하나의 사업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광장에서의 외침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고, 언어를 바꾸는 작업이 담론의 지형을 바꾸며, 지역의 작은 모임이 전국적 연대로 번지는 과정은 언제나 여러 단체의 실천이 교차하고 축적되면서 만들어진다. 따라서 여덟 개의 범주는 서로 독립된 영역이 아니라 끊임없이 교차하고 연결되며, 그 연결 속에서 여성운동 생태계를 만들어왔다.

여덟 가지 범주는 사업을 분류하기 위한 행정적 틀이나 학술적 구획이 아니라 변화가 만들어지는 경로를 드러내기 위한 언어이다. 아젠다 세팅, 젠더 담론의 확산과 전복, 신생과 차세대 인큐베이팅, 문화예술·미디어·스포츠라는 새로운 언어, 교차성, 지역과 글로벌, 활동가 역량 강화, 기록과 아카이빙이라는 여덟 가지 범주는 성평등 운동이 집회와 선언을 넘어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를 변화시켜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활동가 한 명이 자신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는 순간, 소외된 집단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공론의 언어를 얻는 순간, 지역의 작은 모임과 참여자의 외침이 운동의 일부임을 확인하는 순간. 이 장은 바로 그런 순간들의 총체이며, 이를 통해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이 한국 페미니즘 운동의 변화 인프라로서 수행해온 역할을 되짚어보고자 한다.

01

아젠다 세팅 : 사회적 의제로의 전환

1. 미투(#MeToo) 운동 : 개인의 경험을 집합적 언어로

미투운동이 한국 사회를 강타한 2018년, 재단의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흩어진 개인들의 분노와 용기가 '조직된 사회적 힘'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했다. 이 시기 지원사업들이 거둔 핵심 성과는 단순한 피해 고발의 증폭이 아니라, 미투를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제도적 대안을 요구하는 사회적 의제로 전환시킨 데 있다.

(1) 2018년 광장과 '#Me Too 지원사업'

2018년 미투국면이 시작되자 재단은 재단 건물 1층에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시민행동)'의 사무실을 제공하였다. 시민행동은 6개 단체에서 활동가 1인씩을 파견해 상황실을 꾸리고 기자들에게 매일 이슈 브리핑을 하고 매주 집회를 조직하였다. 수시지원사업을 통해 광장의 움직임이 멈추지 않도록 지원하는 역할에도 나섰다. 수시지원사업 '2018분 이어 말하기'는 광장에서 피해자들의 말하기를 밤새 이어감으로써 우리 사회 성폭력의 의미를 다시 쓰게 하였고, 성폭력이 개인의 피해이자 구조적 산물임을 널리 알린 공간이었다.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는 이 흐름을 제도 변화 요구로 응집시켰으며, '미투 퍼포먼스 - 세상을 부수는 말들'은 성착취 구조와 성폭력이 결코 분리된 문제가 아님을 가시화했다.

“끝까지 울고 웃고 같은 말을 하는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밤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함께 세상과 싸울 것입니다. 각자 외로운 길을 걷고 있다고 느낄 수 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평등을 위해 함께 있다는 사실은 저를 더 강하게 합니다.”

(2018분 이어 말하기 참가자, 2018성평등사회조성사업결과보고서)

이러한 광장의 활동은 수도권에 그치지 않았다. 전북여성단체연합(2018)은 '#미투(MeToo)를 너머 #위드유(WithYou) 성평등한 사회로'라는 수시지원사업을 통해 즉각적으로 광장을 열었으며, 서지현 검사 사건과 이윤택 사건의 중심지였던 경남지역의 경남여성단체연합은 지역 미투연대를 결성하여 사법과 교육 현장의 변화를 요구했고, BRIDGE는 부산에서 차세대 활동가들이 대학 미투집회와 부산 미투집회에 연대하며 지역과 세대를 가로지르는 운동의 저변을 넓혔다. 이는 미투운동이 서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국의 이야기가 되도록 하였다.

“미투를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성들이 함께 하고 있고 당신들도 함께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전하고 싶어서 더 열심히 외쳤던 것 같다. 길에서 신기하게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고 좋지 않은 시선도 있었지만 몇몇 분들은 박수쳐주시고 응원해주시기도 했다. 그리고 행렬을 돌 때 참여하는 분들도 많아서 행렬이 끝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처음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있었다.”

(#미투로 바꿀 세상, 우리가 만들자' 참여자, 2018성평등사회조성사업결과보고서)

또 재단은 '#Me Too 지원사업'을 긴급 모금하고 편성하여 미투운동의 물결을 이어가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성폭력 생존자 일상회복프로젝트 생존키트',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이주여성들의 MeToo :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피해자 지원 Up', 인천여성민우회의 '<우리의 용기가 학교를 바꾼다> 인천의 10대 여성들의 스쿨미투 집중워크숍 및 안내서 제작기', 전북여성단체연합의 '성평등 사회를 향한 끝없는 외침, '우리는 달라지고 있다 Action',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의 '성폭력 예방과 미투 운동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이주여성상담소'비움>' 등 다섯 개의 사업이 선정되어 미투 국면 단체들의 액션이 힘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 2019년 이후 미투운동

2019년 차세대 지원단체인 울산페미니즘기획단은 해당 지역 최초로 스쿨미투 대응 활동을 시작하며 교육감이 단체 행사에서 입장을 표명하도록 유도했다. 대구여성영화제와 한국여성의전화의 여성인권영화제는 미투운동의 흐름을 문화적 공론장으로 이어가며 대중적 담론을 형성했고, 한국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는 반성폭력 운동의 역사를 영상으로 기록함으로써 미투 이후 등장한 새로운 세대의 활동가들에게 젠더기반폭력에 대응한 여성운동의 연속성을 이어주었다.

청소년페미니즘모임(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전신, 2019)은 자칫 자극적으로 소비될 수 있는 스쿨미투를 '학내 성평등 운동'으로 전환시키며 운동의 방향을 보다 근본적인 구조 개선으로 재설정하였다. 339명의 시민 의견을 수렴해 UN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청소년이 자원과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적 주체임을 증명한 활동이었다. 그 결과 UN은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성교육 표준안 폐지와 포괄적 성교육 마련 등을 권고하는 성과가 있었다.

“2016년에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 사건으로 2030 페미니스트들이 사회적으로 등장하던 시기, 저희도 좀 비슷한 고민을 하면서 만난 청소년 페미니스트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페미니스트로 자신을 정체화하고 있지만 동시에 주류 페미니즘 담론 안에서 조금은 어긋남을 느끼는. 그래서 그 경계에 대해 계속 질문하게 되고 청소년 인권과 페미니즘이 만나는 부분들을 계속 탐구해 왔던 동료들이 있었고요. 스쿨미투를 만나면서 조금 더 많은 다양한 경험을 가진 청소년 페미니스트 동료들을 만나서 청소년 페미니즘 운동이 지속가능하다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단체를 만들었어요.”¹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미투의 정신은 운동 내부를 향한 성찰로 이어졌다. 페미씨어터의 제3회 페미니즘 연극제는 연극제 기간 중 발생한 위계 폭력 사건을 은폐하지 않고 투명하게 조사·공개함으로써,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건 처리의 긍정적 롤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미투가 외부로 향한 고발을 넘어 공동체 문화를 바꾸는 실천으로 심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문화기획달은 문단 미투 이후 소외를 겪던 최영미 시인을 초청하여 지역 여성들의 연대와 지지를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 여성재단이 함께 한 관련 사업 목록

연도	단체(시설)명	사업명
2018	한국여성단체연합	2018년 성차별·성폭력의 시대를 끝내기 위한 2018분 이어말하기
2018	한국여성의전화	성차별·성폭력 끝장 집회 - #미투로 바꿀 세상, 우리가 만들자
2018	전북여성단체연합	#미투(MeTOO)를 너머 #위드유(WithYou) 성평등한 사회로
2018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페미! 일.단.만.나! (경남페미! 일상의 단단한 페미니즘을 만나다!)
2018	BRIDGE	특명, 언니를 찾아랏!
2018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생존자 일상회복프로젝트 '생존키트'
2018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여성들의 MeToo: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피해자 지원 Up
2018	인천여성민우회	<우리의 용기가 학교를 바꾼다> 인천의 10대 여성들의 스쿨미투 집중워크숍 및 안내서 제작기
2018	전북여성단체연합	성평등 사회를 향한 끝없는 외침, '우리는 달라지고 있다 Action'
2018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성폭력 예방과 미투 운동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이주여성상담소 '비움'>
2019	울산페미니즘기획단	스쿨미투 부스터 - '담장을 부수다'
2019	대구여성영화제	여성, 영화로 만나다
2019	한국여성의전화	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여성인권 영화 보급 및 여성문화 인력 육성
2019	한국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	페미니스트 토크쇼 정·반·합 : 세대별 페미니즘 운동, 종합을 향하다
2019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스쿨미투가 학교를 바꾼다
2020	페미씨어터	제3회 페미니즘 연극제
2020	문화기획달	여성주의 문화살롱 '라이딩 더 울프(Riding the wolf)'

1. 활동가 인터뷰 (2026년2월)

2. 디지털 성범죄 : 이름을 바로잡는 것에서 사회적 규제

디지털 성범죄 의제화는 2017년 사회적 언어를 바꾸자는 캠페인에서 시작되었다. 재단의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디지털 공간에서 벌어지는 폭력에 정확한 이름을 부여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그 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산업 구조를 해체하고 새로운 기술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심화되어 갔다.

(1) 언어의 전환 : ‘리벤지 포르노’에서 ‘디지털 성범죄’로

2017년 DSO(Digital Sexualcrime Out)의 ‘디지털 성범죄 아웃-새단어 프로젝트’는 언뜻 보면, ‘몰카’를 ‘성폭행’으로, ‘리벤지 포르노’를 ‘디지털 성범죄’ 또는 ‘유포 성폭행’으로, ‘단순 시청’을 ‘시청 강간’으로 바꾸기와 같이 매우 단순해 보이는 작업이었다. 그러나 이 언어의 전환은 단순한 용어 교체가 아니었다. 오락이나 관음으로 묵인되던 행위를 성폭력의 언어로 재정의함으로써, 가해의 구조를 가시화하고 피해의 심각성을 사회가 인식하게 만드는 인식론적 전환이었다.

“카드뉴스가 올라가고 새로운 이슈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을 보았으며 또한 언론사에서 빠르게 해당 문제에 대하여 조명하는 것을 보며 인상이 깊었습니다. 과거에 활동할 때는 직접 언론사에 연락을 하여 문제를 조명해 달라는 요청서를 보내지 않는 이상 기사화되기 힘들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사회가 정말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DSO, 2017성평등사회조성사업최종보고서)

같은 해 DSO는 국내 웹하드에 성범죄 영상을 대량 유포한 해비 업로더 10여 명을 집단 고소하며 언어의 전환을 사회적 고발로 이어갔다. 또 경찰의 미온적 수사 대응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여 디지털 성범죄가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책임져야 할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하였다.

2018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제 연대 프로세스 구축’을 통해 전 지구적 공동행동을 모색하는 글로벌 네트워킹 을 시도하였다. 이는 온라인에 기반한 디지털 성범죄 특성이 단일 국가 안에서의 규제만으로는 해소되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해외에 서버가 있다는 이유로 규제가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단일한 대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활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유니브페미는 대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벌어지는 n번방 관련 2차 가해와 미투 고발자에 대한 혐오 표현 문제를 정면으로 공론화했다. 기자회견과 지하철 광고를 통해 플랫폼의 윤리적 책임을 촉구한 이 활동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율 규제 강화 권고라는 실질적인 행정 변화를 이끌어냈다. 디지털 공간의 혐오 표현이 처음으로 공적 규제의 대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다.

“4월 마녀행진을 대신하여 ‘n번방’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2차가해와 여성혐오성 게시물이 쏟아지고 있는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의 본사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 36개 단위가 공동 주최하고 그 외 45개 단위가 추가로 요구안 연명에 응해주셨을 때도 떠오르고, 작은 규모여서 도란도란 서로의 고민을 책이 들려준 이야기와 더불어 나눌 수 있었던 월별 세미나의 순간순간들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가장 최근에 다녀온 전국 순회 좌담회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각자의 공간에서 분투하고 있는 대학 페미니스트들의 따뜻했던 환대가 있었는데요. 네트워킹 그 자체만을 위해서도 완성도 높은 사업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유니브페미, 2020성평등사회조성사업최종보고서)

(2) 기술의 고도화에 맞선 선제적 대응

디지털 성범죄는 기술과 함께 진화했다. 재단의 지원사업들은 이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2021년 한국여성민우회는 AI 기술의 성차별적 구조를 분석하여 국내 최초의 ‘페미니스트 AI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 15개 키워드, 52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 가이드라인은 AI가 만드는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기술임을 천명했다.

2025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현지 조사를 통해 한국 남성 중심의 온라인 성·인종 착취 정보가 베트남 현지의 오프라인 성착취 구조를 조직화하는 실태를 규명했다. 디지털 성범죄가 국경을 넘는 구조적 폭력임을 밝힌 이 조사는 국제 공동 대응의 발판을 마련했다.

(3) 교육과 모니터링의 확장 : 사각지대를 향하여

2018년 안양나눔여성회와 2021년 원주여성민우회 등은 아동·청소년의 미디어 사용 실태를 반영한 예방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학교 현장에 보급했고, 2023년 대구여성장애인연대의 발달장애여성 대상 온라인 그루밍과 디지털 성범죄 식별 교육을 통해 그동안 예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이들에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임파워링 하였다.

2024년 춘천여성민우회의 디지털 성착취 재판 모니터링 활동은 가해자 처벌의 과정을 시민이 직접 감시하는 새로운 실천 모델을 제시했다. 2025년 여성감독네트워크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애니메이션 ‘재민이’를 제작했다. 청소년이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변해가는 과정을 담은 이 작품은 딥페이크 문제를 어른들의 경고가 아닌 또래의 언어로 전달함으로써 예방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올해는 ‘N번방을 넘어서-성폭력 재판 방청 연대’가 한국여성재단의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선정된 것도 그렇고 그로 인해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올해의 보이스상 수상한 것도 그렇고 좋은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N번방 사건이 터지면서 사회적 필요성을 느끼고 지역 시민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시작된 성폭력 재판 모니터링 사업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쁩니다.”

(춘천여성민우회, 2024성평등사회조성사업최종보고서)

☞ 여성재단이 함께 한 관련 사업 목록

연도	단체(시설)명	사업명
2017	Digital Sexualcrime Out	디지털 성범죄 아웃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 및 근절 사업
2018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제연대프로세스 구축
2018	안양나눔여성회	디지털성폭력예방교육 대상별 강의안 및 인식개선콘텐츠 개발사업
2020	유니브페미	2030 대학 페미 네트워킹
2021	유니브페미	2021 대학 페미 네트워킹
2021	한국여성민우회	AI는 성차별이 뭔지 알까?
2021	원주여성민우회	디지털성폭력, "누구나"일수도 있지만, "누구도"여서는 안되는 세상
2023	대구여성장애인 연대	"나도 사랑을 하고 싶어요", 발달장애여성들의 안전한 성과 사랑을 위한 동행
2024	춘천여성민우회	n번방은 끝나지 않았다 - 디지털 성폭력 재판 방청 연대
2025	여성감독네트워크	디지털 성폭력에 대응하는 차세대 여성 감독들의 영상 제작 프로젝트
2025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국경을 넘는 온라인 성·인종착취 강간문화 대응을 위한 현지조사

3. 재생산권 : 국가의 도구에서 여성의 권리로

이 시기는 임신중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여성의 자기결정권 대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소모적 대립 구도에서 벗어나, 성교육·피임·임신·출산·양육·환경 등 생애 전 과정을 포괄하는 ‘재생산권’이라는 프레임으로 재설정된 것에 중요성이 있다. 이는 단순한 낙태죄 폐지 운동이 아니라, 국가가 오랫동안 인구 정책의 도구로 삼아온 여성의 몸을 주체적인 권리의 영역으로 되돌려놓는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다.

(1) 낙태죄 폐지를 넘어 재생산 권리

2018년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낙태죄 폐지 이후의 법·제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입법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 작업의 핵심은 논의의 지형을 바꾸는 것이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선택권을 맞세우는 기존의 프레임은 여성을 수세적 위치에 놓는 구조였다. 재단의 지원사업들은 이 프레임을 해체하고, 재생산을 자유권·평등권·사회권을 포괄하는 기본권의 언어로 재구성했다. 피임할 권리, 임신을 중단할 권리, 임신을 유지할 권리, 안전하게 출산할 권리, 양육을 지원받을 권리가 모두 하나의 권리 체계 안에 놓인다는 것이었다.

“낙태죄 폐지는 여성운동의 오랜 의제이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재생산권이라는 포괄적 개념과 연결시켜 기본권 보장의 측면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대중 설득 이전에 스스로를 설득하는 작업이었다. 또한 낙태죄 폐지라는 운동적 목표가 여성의 인권 향상으로 순조롭게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지나치게 안일하거나 막연하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재생산권은 임신중단의 권리는 물론 피임, 임신유지, 출산, 양육에 이르는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성과 재생산에 관련된 인식에서부터 법과 사회제도 전반의 변화로 이어져야 그 보장이 가능하다.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한 TF 논의 과정은 이러한 고민과 쟁점을 구체화시키는 시간이었으며, 사업명에 있는 ‘재생산권 확보’라는 말의 무게가 갈수록 무거워지는 시간이기도 하였다.”

(한국여성단체연합, 2018성평등사회조성사업최종보고서)

2020년 일다는 정부의 낙태죄 관련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즉각적인 비판 담론을 형성했다. ‘낙태죄 부활’이 아닌 ‘재생산권 보장’이 국가의 책무임을 강조하는 이 기록은 입법 과정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원칙을 공론화하였다.

2025년 여성환경연대의 ‘환경기 돌봄 공론장’은 재생산권 논의를 생애 전체로 확장했다. 환경은 오랫동안 노화나 상실의 언어로 다루어져 왔다. 이 사업은 대규모 설문조사를 통해 환경기에 필요한 사회적 돌봄과 정책 공백을 확인하고, 환경을 개인이 홀로 감당해야 할 증상이 아닌 공동체가 함께 논의해야 할 의제로 전환하도록 요구한다. ‘환경파티’를 통해 환경을 축하하고 나누는 문화를 확산시킨 것은, 여성이 자신의 생애주기 변화를 수치나 결핍이 아닌 긍정적 전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적 토대를 마련하는 실천이었다.

(2) 교차점에서의 재생산권, 장애여성의 목소리

재생산권 논의에서 묵직한 질문을 먼저 던진 것은 2015년 장애여성공감의 '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사업이었다. 이는 재생산권 논의에서 가장 소외되어 온 목소리를 '중심'으로 가져오는 시도였다. 장애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오랫동안 우생학적 관점과 보호 중심의 프레임 속에서 국가의 개입과 통제 대상으로 다루어져 왔다.

이 사업은 이러한 구조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 '건강함'과 '정상성'만을 추구하며 '몸의 효용성' 관점에서 장애인의 재생산을 통제하려는 국가의 태도를 문제화하고, 장애여성이 자신의 신체와 건강에 대해 주체적인 결정권자이자 협상가임을 선언했다.

이는 재생산권 담론이 비장애인 여성의 경험만을 중심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장애와 여성이라는 두 개의 억압이 교차하는 자리에서 재생산권이 어떻게 이중으로 박탈되어왔는지를 가시화함으로써, 한국 재생산권 운동의 지평을 질적으로 확장했다.

“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사업의 경우 토론 단체를 섭외하는데 많은 공을 들였다. 여성운동계와 장애인운동계가 재생산권과 관련하여 충돌되는 지점이 있을 수 있다고 추상적인 짐작만이 가능한 상황에서 각 운동계의 개별 단체에 제안하고, 섭외를 요청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었다. 섭외 과정 중 “아직은 이야기하기 어렵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피드백을 종종 받곤 했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려워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큰 시도”라는 이야기를 하며 어렵게 포럼 자리에 참석해주신 분들도 계셨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재생산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장애여성공감, 2015성평등사회조성사업최종보고서)

(3) 인구 정책의 민낯, 난임 지원의 젠더적 재해석

2019년 한국여성민우회의 난임 지원 정책 모니터링은 불편한 질문을 던졌다: 국가가 난임 시술을 지원하는 것은 여성의 건강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인구 정책인가? 분석 결과는 후자에 가까웠다. 보조생식술이 여성의 몸에 미치는 위해와 부작용은 정책 논의에서 체계적으로 간과되고 있었고, 지원 대상은 혼인 관계 중심의 '정상가족'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이 사업은 난임 지원이 여성에게 다양한 삶의 선택지를 보장하는 방향이 아니라 특정한 가족 형태를 강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음을 문제로 제기하였다. 국가가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 자체가 여성의 몸을 출산 도구로 보는 시각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4) 몸의 주인으로, 신체 주권과 자기 돌봄

2020년 여성환경연대는 여성 위생용품 사용 경험 조사를 통해 여성의 몸을 둘러싼 상업화된 시각을 비판했다. 외음부 세정제로 대표되는 여성 위생 산업은 여성의 몸을 끊임없이 관리하고 교정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 사업은 그 시각을 뒤집어, 여성의 몸을 '청결 관리의 대상'이 아닌 '자기 돌봄의 주체적 공간'으로 재정의했다.

“남에게 어떤 몸으로 보여야 하는지에 대해 늘어놓는 상업광고들은 늘 주변에 넘쳐나지만 정말 필요하고 구체적인 몸에 대한 설명은 늘 부족한 상황입니다. [...] 우리에게서 내 몸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정보를 알아야 허위 광고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성의 몸을 '관리 대상'으로 여기게 만드는, 몸에 대한 편견을 함께 없애나가요.”

(여성환경연대, 2020성평등사회조성사업최종보고서)

2018년 일다의 섹슈얼리티 기록 활동은 이 재정의의 더 넓은 맥락으로 확장했다. '엄마 되지 않기'를 선택한 여성, 자신을 출산 도구로 보지 말라고 외치는 이주여성 등의 목소리를 기록함으로써, 이성애와 혼인 중심주의에서 벗어난 다양한 재생산 선택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시화했다. 재생산권은 출산할 권리만이 아니라 출산하지 않을 권리, 자신의 몸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실제 삶의 언어로 기록했다.

☞ 여성재단이 함께 한 관련 사업 목록

연도	단체(시설)명	사업명
2015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2018	한국여성단체연합	재생산권에 대한 권리 확보를 위한 담론 확산 및 입법 방안 연구
2018	일다	여성의 섹슈얼리티 담론을 확장하라
2019	한국여성민우회	저출산 '위기' 담론 속에서 '위기'에 처한 여성의 권리 찾기 : 난임 지원정책 분석 및 정책 대안 제시를 중심으로
2020	여성환경연대	여성 위생용품 사용경험과 성분조사를 통한 몸 인식의 전환
2020	일다	여성연구자들이 발굴한 여성의 역사 & 페미니스트 예술가들이 만든 서사
2025	여성환경연대	완경기 돌봄을 위한 공론장

4. 여성노동 : 차별을 기록하고 제도를 바꾸다

여성노동 관련 사업들이 거둔 성과는 상담과 지원이라는 현장성을 기반으로, 법과 제도를 바꾸는 정책 제언, 차별을 기록하는 아카이빙으로 이어지며 한국 여성 노동운동의 지평을 넓혀왔다. 일터는 성평등 운동의 가장 일상적인 전선이었고, 이 사업들은 그 전선을 포기하지 않았다.

(1) 채용에서 조직 문화까지

2016년 한국여성민우회는 채용 과정의 외모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82개 단위의 '사진 없는 이력서'사용 선언을 이끌어냈다. 구직 과정에서 겪는 외모 규범과 '꽃' 취급받는 실태를 심층 인터뷰로 기록한 이 사업은 채용 관행이라는 가장 일상적인 차별의 공간을 페미니즘의 의제로 만들었다. 같은 해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최저임금이 여성 노동자의 저임금 구조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며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확산했다.

“<젠더 관점의 최저임금 현실화 활동 기획을 위한 연대 워크숍>, <젠더 관점에서 본 최저임금 포럼>, <여성노동자 최저임금 실태 파악> 등 전문 연구자들이 함께 해야 할 부분이 많았다. 그러나 '젠더+최저임금'이라는 조합으로 발제나 조사연구가 가능한 연구자를 찾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다. 인맥이 있는 교수나 연구소 소속의 연구자를 통해 알음알음 물색하기도 하고, 유관 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연구자 정보를 검색하며 무작정 이메일과 전화로 섭외를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소중한 인연을 맺은 연구자들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관련 사업을 도모해 보기로 하는 등 새로운 협력자 확보, 이 또한 실무자에게 큰 성과로 남았다.”

(한국여성노동자회, 2016성평등사회조성사업최종보고서)

2021년 옥희살롱은 요양보호사의 노동을 '서비스'가 아닌 '시민적 실천'으로 재해석하고 돌봄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공론화했다. 2022년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 노동자의 차별이 장애·이주·연령 등과 어떻게 얹히는지 심층 면접을 통해 드러내며, 개별 구제가 아닌 구조 개선을 위한 노동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2024년 서울여성노동자회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자 보호 조치를 명문화한 성평등 취업규칙 모범안을 개발하여 일반 사업장에 배포하고 고용노동부 표준안 반영을 제안했다. 법을 바꾸는 것을 기다리는 대신 현장에서 먼저 실천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든 것이었다.

(2) 불안정한 여성노동과 산업재해 공론화

2014년 일다는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청년 여성 30인의 삶과 노동을 기록하여 '열정노동'과 '조직 내 위계' 문제를 공론화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줌마네는 가사·돌봄 등 비가시화된 노동과 파트타임 경험을 '일 연대기'로 재해석하는 워크숍을 진행했다. 여성들이 '일하는 존재로서의 나'를 긍정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이 경험은 노동의 기록이 치유의 방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2025년 반올림은 전자산업 직업병 피해자와 유족 15명을 인터뷰하여 산업재해를 젠더 관점에서 기록했다. 이 작업은 여성 노동자의 몸이 어떻게 산업의 소모품이 되었는지를 증언하는 당사자들의 언어이다.

2019년 창원여성회는 노동자 대상 성평등 교육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15개 사업장에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여 남성중심적 노조 문화에 균열을 냈다. 2021년 예문공은 여성 예술가들의 사회적 지위와 성차별 경험을 릴레이 토크로 공론화했고, 2025년 페미니스트 디자이너 소셜클럽은 예비 여성 디자이너들을 위한 페미니스트 멘토링을 통해 업계 내 권력 불균형 해소를 시도했다.

📁 여성재단이 함께 한 관련 사업 목록

연도	단체(시설)명	사업명
2014	일다	20대 여성의 노동과 정체성, 기록에 담다
2016	한국여성민우회	「외모 피로사회 - 사진 없는 이력서로 시작되는 변화(가)」
2016	한국여성노동자회	젠더 관점에서 최저임금 현실화 운동 방향 찾기
2018	줌마네	함께 만드는 대안 이력서: 여자들의 일 경험 되살리기/기록하기
2019	줌마네	함께 만드는 대안 이력서2: 여자들의 일 경험 기록하기/공유하기
2019	창원여성회	성평등, 노동을 잇다
2021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재난과 성별화된 돌봄위기를 통과하며
2021	예문공	여성예술가 온 에어(on air)
2022	한국여성단체연합	다름과 닮음으로 함께 만드는 성평등한 일터 이야기
2024	서울여성노동자회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밀착지원과 성평등 취업규칙 만들기
2025	반올림	반도체, 전자산업 여성 노동자 건강권 확보한 활동과 기록
2025	페미니스트 디자이너 소셜클럽	2025 FDSC 예비-사회초년생 디자이너 멘토링
2025	한국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 30년의 역사, 구조적 성차별과 여성노동자의 대응

02

젠더담론의 확산과 전복 : 주류 담론의 균열

정체성들을 공론화했다. 특히 국내에서 보기 드물었던 인터섹스 당사자의 기록은 신체에 가해지는 폭력과 강제적 수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였다. 이 기록들이 증명한 것은 단순한 다양성이 아니었다.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 자체가 권력의 산물이라는 것이었다.

“다른 어떤 주제보다도 섹슈얼리티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록자를 찾기가 어려웠다. 그만큼 여성들에게 있어서 섹슈얼리티 담론은 감옥과도 같은 두터운 벽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다의 사업에 참여하면서, 어디에도 소통할 수 없었던 갑갑함을 토로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스스로 임파워먼트 되었다고 평가한 사업 참여자들의 메시지에 큰 힘을 받았다.”

(일다, 2018성평등사회조성사업최종보고서)

(2) 욕망의 언어 : 금기를 깨는 성교육

2017년 불꽃페미액션의 ‘언니들의 성교육’은 기존 성교육의 문법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위험과 예방을 중심으로 구성된 기존 성교육이 여성에게 성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쳤다면, 이 교육은 20대 여성들이 자신의 몸을 직접 관찰하고 성적 욕망을 주체적으로 탐구하는 경험을 제공했다. 여성이 욕망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 교육이 전한 가장 혁신적인 메시지였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존의 성교육에 대한 끝없는 질문과 저항감으로 시작했다. 성‘관계’ 교육인데 왜 ‘관계’ 교육은 없는 걸까? 왜 정자는 능동적이고 난자는 수동적으로 그려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 물음 끝에 페미들의 성교육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시작부터 난항이 많았다. 원래 장소인 000대학교에서 강의실 대여 불허가 판정이 났으며, 시작하기 하루 전 날, 00대 측에서 강의실 대여를 거부하였다. ‘피임만능주의’, ‘자유성관계’ 따위의 단어를 듣는 것도 지치고 화가 났지만 당장에 이걸 어찌해야 하나. 참 막막하였다. 어찌저찌 000대학교와 00여대, 00대를 왔다 갔다 하며 강의실을 대여할 수 있게 되었다. 아직까지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구나, 열의에 불타올랐다.”

(불꽃페미액션, 2017성평등사회조성사업최종보고서)

2022년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적극적 합의’ 캠페인은 이 흐름을 제도적 언어로 연결했다. 성폭력 판단 기준을 ‘저항 여부’에서 ‘동의 여부’로 전환하는 이 담론은, 여성이 ‘아니오’를 말할 수 없는 상황을 성폭력으로 규정하던 기존 프레임을 넘어‘예스’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성적 규범을 제시했다. 온라인 게임과 톨킷을 통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형태로 확산된 이 캠페인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추상적 권리가 아닌 일상적 권리이자 구체적 생활문화로 만들어내는 시도였다. 나아가 현행법의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여부’로 바꾸는 운동에 박차를 가하는 역할을 하였다.

1. 섹슈얼리티 : 금기에서 권리로

이 시기 섹슈얼리티 관련 사업들이 거둔 가장 근본적인 성과는 섹슈얼리티를 사적이고 위험한 영역에서 꺼내어 공적인 권리의 언어로 다시 놓은 것이었다. 누가 욕망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떤 몸이 정상으로 인정받는가, 누구의 관계가 사랑으로 불릴 수 있는가. 이 사업들은 그 질문들을 금기의 영역에서 끌어내어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임을 증명하는 공론의 장으로 만들었다.

(1) 존재의 기록 : 가려진 정체성을 세상 앞으로

2015년 레주파는 도시에 사는 여성 성소수자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들이 영상·사진·라디오 등의 매체를 통해 스스로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경험을 지원했다.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 존재를 스스로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운동이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언니네트워크는 퀴어와 페미니즘을 결합한 매거진 []을 발간하며 퀴어 페미니스트들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대안 매체를 구축했다.

2018년 일다는 이 작업을 더 넓게 펼쳤다. 10대부터 60대까지 여성 20인의 섹슈얼리티를 기록한 이 프로젝트는 동성애·비혼·BDSM·인터섹스·드랙 퍼포머·폴리아모리 등 그동안 무지의 베일에 가려져 있던

“지역, 연령, 몸 담고 있는 공간이 모두 다른 다양한 사람들과 ‘적극적 합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화할 수 있었다는 점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찾아가는 적극적 합의 교육’은 동의 담론을 구성하는 풍성한 언어에 대해 많은 사람들과 고민하고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특히 워크숍 퍼실리테이터로서 참여자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일상적/성적 행위 속에서 동의가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앞으로의 활동에 큰 자원이 될 것 같습니다. ‘맞춤형 워크숍’은 동의에 대해 잘 모르거나 일회적이고 일방적인 행동으로 오해하는 인식이 퍼져있는 상황에서 잘 기획된 대화와 놀이/몸 움직임을 통해 ‘적극적 합의’를 직접 경험해볼 수 있어 특히 좋았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2022성평등사회조성사업최종보고서)

2023년 대구여성장애인연대는 섹슈얼리티 담론에서 가장 소외된 자리에 있던 발달장애여성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가져왔다. 무성적 존재로 여겨져 온 발달장애여성이 사랑하고 욕망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선언, 그리고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한 그루밍 예방 교육과의 결합은 섹슈얼리티 권리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실증했다.

“금번 사업에 참여한 발달장애여성들은 모두 20대 여성들로 사업 자체의 퀄리티도 중요했지만, 서로 교류하고 함께 할 수 있음에 큰 반향이 있었다. 또래들과의 모임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동안은 온라인을 통한 디지털성범죄나 교제폭력에 노출되는 빈도가 현격히 줄어들었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성(혹은 동성)에 대한 성과 사랑도 중요하지만 우정과 연대 또한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고, 만남을 기뻐하거나 헤어짐을 슬퍼하면서 꼭 다시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후기를 많이 남겨 무척 보람되고 감동적이었다.”

(대구여성장애인연대, 2023성평등사회조성사업최종보고서)

(3) 관계의 재구성: 이성애 중심주의를 넘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두잉 사회적협동조합은 ‘탈연애·비혼·공동체’를 키워드로 한 인식론 강의와 워크숍을 통해 이성애 중심적 관계 각본 밖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이 새로운 관계를 상상하고 연결되는 장을 만들었다.

“5주간의 활동은 끝났지만 관심사와 지향점이 비슷한 동료들을 만나게 되어 참으로 편안했고,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는 사실에 위로를 받았고, 부당한 현실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혼자’였다면 힘들었을 일들을 ‘우리’가 모여서 작지만 큰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에 부푼 시간이었습니다.”

(두잉 사회적협동조합 참여자 후기, 2020성평등사회조성사업최종보고서)

(4) 억압의 진지에서: 청소년과 종교 영역

섹슈얼리티 담론이 가장 억압적으로 작동하던 두 영역, 청소년과 종교에서도 균열이 시작되었다. 2015년 여성문화이론연구소와 2021년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는 청소년의 성적 실천을 비난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청소년 섹슈얼리티를 인권의 언어로 재해석했다.

2020년 서울YWCA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계속 무산되는 상황에서 교회 안의 성소수자 이야기를 콘텐츠로 제작하며 가부장적 종교 문화 속에서 금기시되던 목소리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냈다. 성경을 기초로 하여 평화와 환대를 말하는 교회가 외면해 온 존재들을 직면하게 만든 이 작업은 종교 공동체 내부에서 성평등 담론이 뿌리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기독교여성주의 사업에 함께 참여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외치는 ‘평화’가 정말 모두에게 정의로운 것인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교회 안의 불평등과 차별과 혐오, 폭력에 대해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집담회, 성소수자 인터뷰가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외면하고 있었던 차별과 혐오의 존재에 대해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이야기할 때 소외되는 이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여성이 권력에서 배제되고, 성소수자, 약자들이 차별받고 배제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YWCA, 2020성평등사회조성사업최종보고서)

☑ 여성재단이 함께 한 관련 사업 목록

연도	단체(시설)명	사업명
2015	레주파	도레미 프로젝트 (도시에 뜬 레인보우 미디어 프로젝트)
2015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청소년 인권운동과 여성주의 인문학의 만남
2016	언니네트워크	여성주의 액션 매거진 <언니네>
2017	언니네트워크	퀴어페미니스트매거진 < >
2017	불꽃페미액션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언니들의 성교육
2018	일다	여성의 섹슈얼리티 담론을 확장하라
2020	서울YWCA	성평등한 교회 만들기 사업 '페미니즘, 교회 담장을 넘다'
2020	두잉 사회적협동조합	네가 어디 있든 우리는 연결될거야
2021	두잉 사회적협동조합	네가 어디 있든 우리는 연결될거야
2021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우리의 말하기가 계속되도록
2022	한국성폭력상담소	가장 확실한 성적 동의, 적극적 합의
2023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나도 사랑을 하고 싶어요", 발달장애여성들의 안전한 성과 사랑을 위한 동행

2. 백래시 대응 : 혐오의 시대,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나아간다

재단의 지원사업들이 백래시에 대응하면서 거둔 성과는 혐오 세력의 공격을 구조적 폭력으로 명명하여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언어와 전략을 구축한 것이었다. 나아가 안티페미니즘이 거세질수록 페미니즘 운동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더 정교한 언어를 갖추고 더 넓은 연대를 만들며 강건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시기 백래시 대항 담론의 핵심은 방어가 아니라 실천이고 재구성이었다. 혐오의 언어에 맞서 싸우는 것을 넘어, 페미니즘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정의하고 확장하는 작업이었다.

(1) '백래시 시대의 페미니즘'을 다시 쓰고 계속 쓰다

2019년 일다는 온라인 '미러링' 담론에만 갇혀 협소하게 이해되던 페미니즘의 지형을 넓히는 작업에 착수했다. 비건·종교·장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천하는 뉴페미니스트 그룹 20팀을 발굴하고 기록한 이 사업은, 페미니즘이 특정 온라인 문화의 전유물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작동하는 실천임을 보여주었다. 백래시가 페미니즘을 특정 집단의 과격한 언어로 축소하려 할 때, 이 기록은 페미니즘이 얼마나 다양하고 넓은 곳에서 살아 숨 쉬고 있는지를 실증하는 대항 담론이었다.

“작년 성균관대 총여학생회(이하 총여) 폐지 총투표가 발의되던 즈음, 아빠가 말했다. “여기서 지면 너 때문에 총여가 없어지는 거야.”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총여가 사라지는 걸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뜻이었다. 딸을 괴롭게 만들려고 질책하듯 한 말은 아니었다. 아빠는 우리의 총여 재건 운동과 폐지 총투표 거부 운동을 내내 지켜보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준 지지자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 말에 밤마다 울었다. 그리고 아침이면 등교해 필사적으로 총여 폐지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돌렸다.”

2019년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페미니스트 ACTion 발굴 시리즈 - 총여는 폐지됐지만, 페미니스트들은 2막을 열었다’ 중에서. (출처: 일다 <https://ildaro.com/8544>)

2022년 같은 단체가 진행한 ‘백래시 시대, 페미니즘 다시 쓰기’는 이 작업의 심화판이었다. 각계의 페미니스트 20인이 역사별 논쟁과 안티페미니즘 선동에 대응하는 철학과 가치를 언어화한 이 기록은 AI·능력주의·기후정의 등 동시대의 의제와 페미니즘을 연결함으로써 백래시 속에서 고립되기 쉬운 활동가들에게 연대와 응원을 제공했다. 우리는 혐오에 쫓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언어로 페미니즘을 다시 그리고 계속 써나가겠다는 다짐이었다.

(2) 혐오에 맞서는 방식 : 침묵도 맞대응도 아닌 사실에 근거한 논리로

여성운동이 혐오와 백래시에 대응하는 방식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담론이 되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비온뒤무지개재단의 ‘권손징악’은 유튜브라는 안티페미니즘 선동의 주요 전장에 직접 뛰어든 한국 최초의 퀴어·페미니즘 접목 시사정치 토크쇼였다. 이 방송은 여성주의자·성소수자 혐오 선동 단체들이 퍼트리는 가짜뉴스와 반여성주의적 주장에 맞서 논리적인 반박과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였다. 특히 트랜스젠더 혐오를 페미니즘으로 포장하는 논리를 해체하며 혐오 세력이 점령한 담론의 공간을 되찾으려는 실천이었다. 혐오를 외면하거나 감정적으로 맞받아치는 대신, 사실과 논리로 가짜뉴스를 해체하는 대항 담론을 만들었다.

“반 여성주의자·성소수자 혐오선동 단체들이 퍼트렸던 가짜뉴스와 반 여성주의적인 주장에 적극 반박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했다. 이를 통해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는데 기여했다. 특히 트랜스젠더 혐오를 페미니즘이라 주장하는 상황에 맞서 이를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트랜스젠더와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데 기여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페미니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했다.”

(비온뒤무지개재단, 2022성평등사회조성사업최종보고서)

2019년 충북의 행동하는 페미니스트 ‘페미 찾아 삼만리’ 프로젝트는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이 원칙을 실천했다.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 중 남초 커뮤니티의 조롱과 욕설을 맞닥뜨린 이들이 택한 대응은 침묵도 맞대응도 아니었다. 그 공격을 오히려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증명하는 지표’로 삼아 활동을 계속 이어갔다. 백래시는 운동이 잘못되었다는 신호가 아니라 우리의 운동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라는 것. 그리고 그 신호를 두려움이 아닌 확인의 언어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성평등으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실천이었다.

(3) 정책의 퇴행을 언어화하다 : 제도적 감시와 국제 연대

2022년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나타난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후보의 캠페인은 백래시가 제도 정치의 언어로 진입했음을 보여주었다. 여성단체들은 이에 맞서 ‘페미니스트 주권자행동: 차별과 혐오, 증오선동의 정치를 부수자’와 ‘여성가족부 폐지를 막는 이어말하기’ 등의 수시지원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시 광장을 만들었다. 이 활동들은 혐오가 공식적인 정치 언어가 되는 순간, 페미니즘은 더 많은 여성들의 목소리로 응대할 것이라는 점을 공고히 하였으며, 여성들을 외면하는 정치권력은 역사 속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경험을 다시 한 번 널리 알리고자 하는 시도였다.

2023년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자체 부서명에서 ‘여성’이나 ‘성평등’이 삭제되는 현

상을 체계적으로 추적했다. 정책의 후퇴는 때로 법 개정이나 공식 선언이 아닌 부서명 변경이나 예산 삭감 같은 방식으로 조용히 이루어진다. 이를 비교·분석하여 국회와 국제사회에 알린 작업은 퇴행을 가시화하는 것 자체가 저항이자 담론임을 보여주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것, 이름 붙이지 않은 것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 백래시 대항 담론의 출발점이었다.

“각 지역별로 여성정책 연구조직이 사업목적이 전혀 다른 조직과 통·폐합되거나, 성평등 전담부서 명칭에서 ‘성평등’이나 ‘여성’이라는 단어가 삭제되고 관련 예산이 삭감되는 등 성평등 정책이 퇴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추진체계와 성평등 정책을 모니터링한 것은 매우 유의미한 작업이었다고 생각한다. (중략) 매일 대응해야 하는 이슈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참으로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이 시간을 거치자 각 단체들의 정책 역량은 탄탄하게 구축될 수 있어 많은 보람을 느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2023성평등사회조성사업최종보고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같은 단체는 제네바 현지에서 UN CEDAW 위원들에게 한국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와 성평등 추진체계 후퇴 실태를 직접 보고했다. 국내에서 막힌 통로를 국제사회를 통해 우회하는 이 전략은 CEDAW 위원회의 실효적 권고를 이끌어내는 성과로 이어졌다. 국제기구를 통해 국내 백래시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식은, 페미니즘 운동의 언어가 한국 사회의 경계를 넘어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2021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의 ‘정치에서의 여성폭력 박멸 프로젝트’는 백래시가 정치권의 혐오 공약과 권력형 성범죄로 제도화되는 방식을 분석하고 ‘정치에서의 여성폭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며 법적 요구안을 제시했다.

“2020년 말부터 계획했지만 사업비가 없어 진행하지 못했던 프로젝트를 한국여성재단의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2021년 하반기가 되어서야 겨우 진행하게 됐다. 지난 몇 년간 반복적으로 드러난 권력형 성범죄, 페미니스트 후보의 선거벽보 훼손, 선거운동원에 대한 폭력, 지역여성의원에게 대한 성희롱 등 극히 일부분만 드러난, 파편화된 개인의 경험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 ‘여성이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회와 정치부터 성평등하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2021성평등사회조성사업최종보고서)

(4) 현장을 지키다 : 지역과 일상에서의 백래시 돌파

2021년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는 대관 신청 과정에서 “페미니스트 단체를 받지 않는 내부 지침이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위티는 이를 침묵으로 넘기지 않고 페미니즘 운동에 대한 혐오와 백래시로 공식화하면서 해당 기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결국 기관은 잘못을 시인했지만, 발표된 사과문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편견과 성평등 인식의 부족은 ‘미흡한 대처’라는 용어로 뭉뚱그려졌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는 이 과정을 칼럼으로 작성했으며 결과보고서에도 그대로 기록하며 공론화하였다. 부당한 거절과 불안정한 사과를 기록하는 것, 그것이 모두가 경험하는 백래시에 맞서면서 서로를 응원하는 방식이었다.

2022년 너머서는 성평등 영화제 개최 과정에서 하루 140여 통의 집단 민원과 공공기관의 일방적 행사 취소를 경험했다. 이 사태는 백래시가 단순한 온라인 혐오를 넘어 공공기관이 굴복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너머서는 이를 기록하고 성평등 이미지 보급을 지속함으로써, 공공 영역에서 성평등이 후퇴하지 않도록 버티는 역할을 했다. 사라지지 않는 것, 계속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혐오에 대한 강력한 응답이었다.

“OO구 여성가족과와 함께 논의해서 성평등 이미지를 개발하여 성평등주간 행사 때 이미지들을 활용한 현수막 제작을 계획하고 있었음. 그런데 성평등주간 성평등영화제에 개최하는 영화 중 동성애를 다루는 영화가 있다면서, 정체 모를 사람들이 집단 민원을 하루만에 140여통 구청장에게 넣음. 구청장실과 여성가족과가 이로 인해 혼란을 겪으면서, 성평등영화제를 취소하고, 제작하려던 성평등 주간 현수막의 이미지도 대폭 수정됨. 개발하던 성평등 이미지를 사용한 현수막 제작 불발됨.”

(너머서, 2022성평등사회조성사업최종보고서)

혐오의 시대, 백래시를 맞닥뜨린 단체는 이들만이 아니었다. 특히 민원에 의해 혹은 자체 판단으로 대관을 취소한 수많은 사업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단체들은 우리가 성평등을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음을 믿고 응원하며, ‘위축’ 대신 ‘말하고 기록하고 버티는 용기’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국제기구 회의장에서, 공공기관의 취소 통보 앞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실천되며 백래시 시대를 살아가는 거대한 담론을 만들어가고 있다.

☑ 여성재단이 함께 한 관련 사업 목록

연도	단체(시설)명	사업명
2019	일다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페미니스트 ACTion 발굴
2019	행동하는페미니스트	페미찾아삼만리
2021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우리의 말하기가 계속되도록
2021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정치의 품격: 정치에서의 여성폭력 박멸 프로젝트
2022	비온뒤무지개재단	페미니즘X퀴어: 유튜브에 무지개를 띄우다
2022	일다	백래시 시대, 페미니즘 다시 쓰기
2022	너머서	공공홍보물 젠더 혁신을 위한 디자인 이미지 개발 및 확산
2022	한국여성민우회	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행동 : 차별과 혐오, 증오선동의 정치를 부수자
2022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가족부 폐지를 막는 이어말하기
2023	비온뒤무지개재단	퀴어 페미니즘으로 대중문화 읽기: 케이팝을 퀴어링
2023	한국여성단체연합	From Local to Global : 성평등 의제로 지역과 국가, 글로벌을 잇다
2024	한국여성단체연합	제88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 심의 대응 활동
2024	비온뒤무지개재단	온 세상에 성평등 무지개: 찾아가는 퀴어 페미니즘 플랫폼
2025	한국여성민우회	윤석열 파면한 페미니스트 대행진 : 차별과 혐오선동 정치에서 성평등 정치로!

03

차세대와 신생 인큐베이팅: 여성운동의 다음 세대를 키우다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폭발적으로 등장한 새로운 페미니즘 세대의 운동은 기존 여성운동의 방식과 다른 것이 많았다. 특정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느슨한 형태,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 시작되는 조직화와 연대, 스포츠와 모터사이클과 웹툰이라는 낯선 문화적 양식들. 재단은 이러한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사업을 신설하였다.

이는 2015년 신생단체 부문을 신설해 새로운 운동단위를 인큐베이팅하고자 하였던 취지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차세대 여성운동은 여성주의에 기반한 활동 경험이 6개월(혹은 3개월) 이상 되고 여성운동의 성장과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3인 이상의 그룹이라면 누구든 문을 두드릴 수 있어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았다.

재단의 신생단체와 차세대여성운동 지원 목적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여성운동 그룹들이 지속 가능한 운동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이었다. 단순히 기금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인건비를 바탕으로 활동가를 지켜내고, 복잡한 회계와 행정처리 실무 교육을 통해 행정적으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한 활동으로 거듭나게 하며, 다양한 세대와 지역을 연결하여 지속 가능한 활동의 근육을 만들어주는 입체적 성격이었다고 할 수 있다.

1. 차세대 여성운동 : 시작하자마자 터져 나온 액션

2017년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이 시작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동시다발적이고 역동적인 활동들이 쏟아져 나왔다. DSO는 ‘물카’를 ‘촬영 성폭행’으로 재정의하고 해비 업로더를 집단 고소하였으며, 강남역10번 출구는 영-영 페미니스트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은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대구의 나쁜페미니스트는 여성혐오 살해 사건의 기록물을 발간했고, 진주의 여성주의컨텐츠상영회 페미씨네는 야외 상영회 ‘달빛극장’을 열었으며, 울산의 FACE는 ‘청춘 나의 첫 페미니즘’강의를 만들었고, 사이다제작소는 여성주의 창작 전시를 개최했으며, 불꽃페미액션은 대학 캠퍼스에서 여성의 성적 권리를 이야기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성교육을 시도했다.

“3.8 세계여성의날 페미니즘 문화제 <페미답게 짹짹 간다>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과의 유대감과 친밀함은 분명 그 자리에 모였던 페미니스트들의 에너지들로 인해 가능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죽음에 슬퍼하고 분노하는 것을 계기로 페미니즘 운동을 시작한 이후, 그 기차에 올랐던 순간 제게 알려진 것은 페미니즘의 즐거움과 따뜻함, 연대와 사랑이었습니다.”

(강남역10번출구, 2017성평등사회조성사업결과보고서)

이 사업들을 하나로 묶는 공통점은 2030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지역도 달랐고 방식도 달랐고 의제도 달랐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이 시기 새로운 세대 페미니즘 운동의 특징이기도 하였다. 느슨하고 수평적이며, 온라인과 일상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페미니즘이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피어났다. 재단은 이 흐름을 조직하거나 개입하는 대신, 각각의 움직임이 자신의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퇴장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리를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라는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서울은 멀고, 지역에서 하는 페미니즘 행사에 참가하고 싶어 목말라하던 페미들, 남성중심적이고 여성혐오적인 한국영화들에 지쳐버린 페미-영화관객들이 이 지역사회에도 존재하고, 그들이 달빛극장으로 모였다는 사실이 우리 페미씨네 기획팀에겐 큰 성취였습니다.”

(여성주의컨텐츠상영회 페미씨네, 2017성평등사회조성사업결과보고서)

2018년 대전의 BOSHU는 여성주의 축구팀 ‘FC우먼스플레이잉’과 잡지 발행을 통해 지역 청년 페미니스트들을 결속시켰고, 부산의 BRIDGE는 30년 전 선배 활동가들을 찾아 인터뷰하며 끊어진 운동의 계보를 이었다. 같은 해 범페미니스트네트워크는 2030세대 소규모 팀들을 기반으로 페미니스트 연대체를 결성하여 3.8 여성의 날과 강남역 추모제 등 주요 이슈에 공동 대응하는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파편화된 개별 그룹들이 공통의 의제 앞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2019년 치맛바람라이더스는 모터사이클이라는 전혀 다른 영역에서 페미니스트 공동체를 만들었고, 청소년페미니즘모임은 전국 조직인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를 창립했으며, 보스턴피플은 생활 동반자법 수요를 발굴하고, 행동하는 페미니스트는 충북에서 '페미총회'를 열어 지역 운동의 저변을 넓혔다.

“캠프아웃 행사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은 “바이크x페미니즘 집담회”와 “가부장제 화형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소수자로서, 여성으로서 힘들을 토로하고 서로에게 용기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 행사가 단순 캠핑행사가 아닌 여성주의의 가치 아래 모인 사람들의 공간이라는 것을 되새기게 해주었습니다.”

(치맛바람라이더스, 한국여성재단 2019성평등사회조성사업결과보고서)

2023년 이후에는 공페단단이 친족성폭력 생존자들과 함께 치유와 연대의 공간을 만들었고,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입법운동을 펼쳐갔다. 2024년 페이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웹툰으로 기록했으며, 2025년 여성감독네트워크는 딥페이크에 대응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였다.

2. 신생단체 : 인건비와 운영비, 조직의 기틀을 마련하다

2015년 시작된 신생단체 지원은 여성단체 인큐베이팅의 또 다른 축이었다. 의제를 가진 그룹이 행정의 벽 앞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기초적인 조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핵심이었다. 특히 재단은 신생단체 지원 신설 이전에도 한부모운동 관련 해외 기부자와 국내 활동을 매칭해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시도해왔으며, 또 성평등사회조성사업과는 다른 차원에서 한부모이주여성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배분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재단의 지원으로 빌라 사무실 보증금을 마련하고 상근 활동가 인건비를 확보하며 조직의 내실을 다졌다. 독립 운영 초기의 단체에게 사무 공간과 상근자는 생존의 조건이었다. 이 기반 위에서 한부모 당사자들이 기초 상담원 교육을 받아 동료를 돕는 활동가로 성장했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라는 공식적 발판도 마련했다.

같은 시기 미혼모 당사자 조직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이하 인트리)’도 가장으로서 경제활동을 병행하며 활동해야 했던 당사자들이 인건비 지원을 기반으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인트리는 지원 1년차에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후 미혼모 운동의 중요한 주체로서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16년 인트리에서는 경희사이버대학교와 협약을 진행하여 66명의 미혼모들이 사이버대학에 입학하여 학업을 시작하였으며 마포고용복지지원센터와 협약을 통하여 11명의 미혼모들이 직업교육을 진행하여 천연비누 화장품, 미용, 컴퓨터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성교육 전문 기관과 함께 미혼모들이 성교육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인트리 회원 자녀들과 학교 방과 후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초경파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으로 인하여 다양한 직업으로 연계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하였으며 서울시와 다른 기관들과 연대하여 미혼모차별방지를 위한 협약을 진행하였으며 2017년 남양주와 울산지역에서 지역활동을 확대하여 시작하게 되었다. 2016년 2월 단체회원이 약 80명이었으나 현재 198명으로 회원이 많이 늘어났으며 다양한 연령의 회원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인트리, 2016성평등한사회만들기지원사업최종보고서)

2016년 문화기획단은 이 지원사업을 통해 ‘농촌 성문화 다시보기 “이제 통치지 말자”라는 흥미로운 페미니즘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으며, 2017년에는 부산한부모가족센터가 ‘도약을 넘어 꿈이 현실로’ 사업을 지원받았다. 2022년에는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정치학교를 열었고, 기독교여성연구원 홀다는 교회 성평등 테스트를 개발하며 종교 영역의 문을 두드렸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비비사회적협동조합은 정권 변화와 경제적 위기 속에서 상근 활동가 고용을 유지하며 비혼여성 주거권 운동의 전문성을 키워갈 수 있었다.

3. 신생과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 : 단체의 형식과 내용, 경계가 점차 달라져

2020년부터는 신생 단체와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단체(그룹)의 경계가 이전처럼 세대나 정체성으로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새로운 세대의 운동그룹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부는 단체, 일부는 소모임, 일부는 네트워크로 분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때문에 지원자격에 명시된 것처럼 '운동단위의 성격이 단체인가 그룹(소모임)인가'라는 형식이 유일한 기준점이 되었다. 이에 2020년에는 유니브페미와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두잉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차세대 여성운동이 아닌 신생단체로 지원하고 선정되었으며, 이후 서울여성독립영화제, 농촌페미니즘연구회, 어나더스, 여성주의사진그룹 유토피아 같은 다양한 그룹들이 차세대 여성운동에 지원하였다.

인트리(2016), 공페단단(2023) 등 몇몇 단체들이 이러한 지원을 토대로 임의단체나 비영리단체 등록 등 단체로의 전환을 이어갔다. 하지만 등록된 단체로 나아가지 않고 미등록 단체로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활동하는 단위도 여전히 많다. 이는 자칫 행정적 부담이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이유라고 한다. 그사이 몇몇 단체들은 해소를 선언하기도 하였고, 프로젝트팀이나 네트워크 성격이었던 그룹들은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구성원들을 또 다른 페미니즘 공간에서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단체가 아니라 영리 혹은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한 경우도 존재하였다. 회원단체로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곳도 소수의 페미니스트 그룹의 특성을 이어가는 곳도 있었다. 새로운 운동단위들의 형태는 기존 여성단체들의 모양새와는 달리 매우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 하지만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상근활동비와 운영비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다. 이는 신자유주의 각자도생의 시대, 여전히 재단의 역할이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4. 보고서 작성·회계·세금 등 행정 역량의 기초 다지기

신생과 차세대 지원은 미등록 소모임이나 신생단체들이 운동의 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처리 관련 교육이나 지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사업과 차별적이다. 재단 담당자들은 결과보고서 작성 방법, 세금 처리 가이드, 회계 실무 교육 등 낯설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함께 고민하고 도왔다.

“차세대 여성운동의 특수성을 양해해주셔서 감사하다. 현재 미등록단체로 상근자가 있는 단체보다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당사자 기반으로 하는 모임이라서 당사자들의 여러가지 이슈가 많다. 근무지인 상근자의 여성단체와 피해자모임은 사업의 진행방식을 재빠르게 해나가기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더욱 노력해서 반친족 성폭력 활동을 성실히 해나가겠다. 젠더폭력, 여성주의 활동에 친족성폭력 의제가 더 드러나도록 이곳저곳에서 외치고 활동할 예정이다. 이 지원사업은 창의적이고 신선한 사업들을 지속발굴할 수 있도록 해주는 토대가 되어 신생단체, 미등록단체에 도움이 된다. 지지와 응원을 앞으로도 부탁드린다.”

(공페단단, 2023성평등사회조성사업최종보고서)

☞ 여성재단이 함께 한 관련 사업 목록

연도	단체(시설)명	사업명
2015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큰)가족이 되기 위한 한(큰)걸음
2016	문화기획달	농촌 성문화 다시보기 "이제 통치지 말자"
2016	미혼모협회 인트리	새로운 반의 시작
2017	DSO(Digital Sexualcrime Out)	디지털성범죄 아웃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 및 근절 사업
2017	강남역10번출구	영-영 페미니스트 그룹 연대 "꿀핍유니온(가)" 결성 사업
2017	인권·법률 공동체 두런두런	떠돌고 움직이는 페미니즘, 와글와글
2017	나쁜페미니스트feat.대구	강남역 여성혐오살해사건 1년. 지금, 여기, 우리.
2017	<페미씨네>	페미씨네 달빛극장
2017	FACE	청춘, 나의 첫 페미니즘(성평등 아카데미)
2017	사이다제작소	언어와 미디어를 비트는 여성주의 창작 프로젝트

연도	단체(시설)명	사업명
2017	부산한부모가족센터	도약을 뛰어 넘어 꿈이 현실로
2018	BOSHU	페미스포츠 - '여성이 모이다, 몸을 깨우다'
2018	Bridge	특명, 언니를 찾아랏!
2018	범페미니네트워크	범페미니네트워크 전국 네트워크 강화 사업
2019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스쿨미투가 학교를 바꾼다
2019	치맛바람라이더스	치맛바람라이더스 캠프아웃
2019	보스턴피플	우리에게 조금 먼 가족이 필요해
2019	행동하는페미니스트	페미찾아삼만리
2020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우리의 말하기가 계속되도록
2020	두잉 사회적협동조합	네가 어디 있든 우리는 연결될거야
2020	유니브페미	2030 대학 페미 네트워킹
2020	서울여성독립영화제	제2회 서울여성독립영화제
2020	농촌페미니즘연구회	일터, 삶터에서 성평등한 농촌을 위한 농촌페미들의 역량강화
2020	어나더스	제2회 우리목소리
2020	여성주의사진그룹 유토피아	지방 노년 여성, 여성 청소년 사진 프로젝트: 자기만의 꽃밭
2022	한국여성정치 네트워크	여성, 리더가 되다 - 여성정치학교
2022	기독여성연구원 홀다	영페미와 교회언니가 함께 하는 교회 내 성평등 탐구
2023	비비 사회적협동조합	여성의 주거권 확보와 여성주거공동체 건립을 위한 도전
2023	공페단단	생존자랑댄스: 생존을 자랑하고 생존자와 함께하는 우리의 움직임을 통한 치유
2024	비비 사회적협동조합	여성의 주거권 확보와 여성주거공동체 건립을 위한 도전
2024	페이지	교문을 뛰어넘은 여성들
2025	여성감독네트워크	디지털 성폭력에 대응하는 차세대 여성 감독들의 영상 제작 프로젝트

04

문화예술·미디어·스포츠 : 일상의 언어로 성평등을 말하다

이 시기 재단의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이 미디어·문화예술·스포츠라는 영역으로 외연이 확장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운동의 언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였다. 선언문과 집회로 말하던 운동이 영화와 연극과 달리기로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언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기 시작했다는 것. 특히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새롭게 등장한 세대의 활동가들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독립출판과 스포츠 동아리를 통해 페미니즘을 일상의 언어로 번역했다. 그리고 그 번역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수록, 운동의 저변은 더 넓고 깊어졌다. 이 사업들이 남긴 가장 중요한 성과는 페미니즘이 활동가만의 의제가 아니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화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었다.

1. 미디어 : 페미니즘에 입문하는 또 다른 승부처

미디어 관련 사업들이 거둔 핵심 성과는 주류 미디어가 재생산하는 성차별적 언어와 담론을 해체하고 그 자리를 새로운 언어와 기록으로 채운 것이다. 미디어 관련 사업들은 여성의 역사를 기록하고, 혐오의 언어를 페미니즘 언어로 대체하며, 디지털 공간의 구조적 책임을 호명함으로써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변화의 마중물이 되고 있다.

(1) 대중들을 모으는 힘! 여성영화

영상 미디어의 영역에서는 여성영화의 저변을 확대하고 기록을 보존하는 작업이 다채롭게 이어졌다. 2014년 인천여성영화제가 '전국지역여성영화제네트워크'를 출범시키며 지역 영화제들의 연대 기반을 닦았다. 이렇게 기반이 마련된 네트워크는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 의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또 2023년 서울국제여성영화제는 성인지적 관점의 영상 미디어 리터러시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강사 양성 워크숍과 함께 배포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국제여성영화제는 300여 편의 여성영화 저작권을 확보하고 고화질 디지털화와 온라인 스트리밍 시스템을 구축하여 '아카이브 보라'를 완성했다. 한국여성의전화도 꾸준히 인권영화제를 개최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구축한 여성인권영화 아카이브는 이동상영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여성인권 영화를 공유하고 있다.

“(인권영화 ‘거룩한 질서’ 상영회를 마치고) 가부장제의 모습을 남편, 테레즈의 남편, 시아버지조차도 그 안에서 행복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 마지막에 해방된 남성의 머리와 하와이안 셔츠를 입은 게 너무 웃기고 귀엽다. 그러면서도 노래의 투쟁과 여성연대를 보여주고 짚어주는 게 좋았다. 페미니즘 입문하는 분이나 남성과 함께 봐도 좋겠다. 이 영화의 모범적 전개가 판타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제가 목소리 내면 꼭 한마디씩 거들어주는 분들이 옆에 계신다. 그런 모범적인 면이 와 닿고 좋았다.”

(한국여성의전화 참여자, 2018성평등사회조성사업최종보고서)

(2) 뉴미디어 플랫폼에서 페미니즘을 말하다

유튜브 플랫폼은 새로운 세대의 운동 공간이 되었다.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대부분의 단체들은 더 많은 대중들을 만나기 위해 집회와 토론회, 브이로그 등을 유튜브로 전달한다. 그중에는 비온뒤무지개재단의 ‘권손징악’ 같은 본격 시사토크쇼도 존재한다. 2015년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여성노동 전문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를 런칭하며 주류 방송이 다루지 않는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대구에 사는 비정규직이라고 밝혀주신 청취자. “방송을 꼬박꼬박 듣고 있으며 비정규직으로 나 혼자 고통 받고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방송을 들으며 나의 이야기가 나만의 것임을 아니고, 이런 힘든 세상을 바꾸기 위해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며 전해 오셨다. “덕분에 힘이 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없어질 때 까지 방송을 계속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다. 이분 덕분에 우리도 파워 업!”

(한국여성노동자회 청취자, 2015성평등한사회만들기지원사업최종보고서)

2024년 페이즈는 학교 밖 위기 여성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인스타툰을 제작하여 900명 이상의 팔로워와 소통하며, 위기 청소년에 대한 고정관념을 해체하는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냈다.

(3) 깊이 있는 페미니즘 담론의 생산기지

여성주의 저널 일다의 기록 프로젝트는 10년 이상 이 작업을 이어왔다. 2014년 20대 여성의 노동과 정체성 기록에서 시작하여 2016년 청년 여성의 차별 경험, 2018년 다양한 여성의 섹슈얼리티, 2022년 백래시 시대의 페미니즘 다시 쓰기까지, 매해 시의적절한 주제를 포착하여 언어를 갖지 못했던 여성들에게 발언권을 부여했다. 언니네트워크의 퀴어 페미니스트 매거진 []은 주류 미디어에서 배제된 퀴어 페미니스트들의 정체성을 담은 대안 매체를 구축하고, 유가 판매와 독립 서점 입점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독립출판 모델을 수립했다.

☎ 여성재단이 함께 한 관련 사업 목록

연도	단체(시설)명	사업명
2014	인천여성영화제	페미니즘, 영화로 지역에 접속하라
2014	일다	20대 여성의 노동과 정체성, 기록에 담다
2015	한국여성노동자회	Volume up! '을'들의 당나귀 귀
2016	일다	20,30대 여성들의 '차별 드러내기'
2016	언니네트워크	여성주의 액션 매거진 <언니네>
2017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필름 아카이브를 통한 지역여성영화제 활성화 사업
2017	언니네트워크	퀴어페미니스트매거진 < >
2018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아카이브 보라> 디지털화 사업
2018	한국여성의전화	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여성인권 영화 보급 및 여성문화 인력 육성
2018	일다	여성의 섹슈얼리티 담론을 확장하라
2022	비온뒤무지개재단	페미니즘X퀴어: 유튜브에 무지개를 띄우다
2022	일다	백래시 시대, 페미니즘 다시 쓰기
2023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여성주의 영상 미디어 리터러시의 이론과 실제
2024	페이즈	교문을 뛰어넘은 여성들

2) 문화예술 : 무대와 전시장의 새 언어

문화예술 관련 사업들은 여성 예술가들의 창작 기반을 마련해주고, 기록되지 않은 여성의 삶을 예술의 언어로 복원해주었으며, 피해 생존자들이 예술을 통해 치유하고 주체로 성장하도록 하였다.

(1) 미투 이후 달라진 연극계를 점검하다

연극의 영역에서 가장 지속적인 성과를 거둔 것은 페미씨어터로부터 시작된 페미니즘 연극제였다. 2020년 당시 제3회 연극제로 지원된 이 활동은 2026년 현재 제8회로 이어지며 문화예술계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는 정례적 공론장이 되었다. 특히 연극제 기간 중 발생한 위계 폭력 사건을 은폐하지 않고 투명하게 조사·공개한 것은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건 처리의 긍정적 롤모델을 제시했다. 2019년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은 국가지원 연극 6편을 성평등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리뷰를 게재하며 예술 생태계의 성인지 감수성을 공적으로 점검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2018년 미투운동에 대해 예술지원금 기관은 한 치의 부끄러움과 반성이 없는가. 나는 이전의 연극 환경을 형성한 요인 중 예술지원사업과 기관의 책임 또한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의 성인지 무감성이 지금의 불평등한 예술생태계를 구성했다고 생각했다. 그에 대해 조명하고 지켜 봐야 할 필요가 너무 절실했다. 어디서도 정보를 구할 수 없었고, 그래서 시작하기로 했다.”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2019성평등사회조성사업최종보고서)

(2) 치유의 공간이자 언어인 무대를 이어간다

생존자 치유의 공간으로서 무대가 활용된 것은 이 시기 문화예술 사업의 가장 독창적인 성과였다. 2023년 공폐단단의 ‘생존자랑 댄스’는 친족 성폭력 생존자들이 신체 언어로 자신을 표현하는 공연으로, 2024년 반니(구 공폐단단)의 ‘우리의 생존자랑 이야기’는 생존자들이 직접 그린 자화상을 배경으로 낭독과 연극을 올리는 무대로 이어졌다. 이 공연들은 치유와 예술과 사회 참여가 하나의 실천 안에 결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참여자들이 이후 활동가로 성장하는 질적 성과로 이어졌다.

“나 역시 참여자로서 때로는 신체심리치유라는 몸 작업이 버겁고 낯설었다. 하지만, 다른 참여자들을 보며 동기부여 받고 그 시간을 함께 이루어낼 수 있었다. 함께 만들어간다는 것, 서로의 역동을 주고받는 경험은 새로웠고 시스템의 지원을 받아 상상을 현실로 이끌어 한 발 한 발 밟아나가는 과정이 내 오늘 걷는 현실에 힘을 북돋고 자아 효능감을 쌓아나가도록 해주었다.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하고 소통하고 진행하며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과정은 개인적으로는, 마침 준비하고 있던 창업 준비를 구체화하는 데 중요한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동체를 위한 상상과 개인들의 자원, 그리고 시스템이 만났을 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지를 겪으며 보다 더 자신을 믿고 발 딛고 있는 여기, 이곳에 더욱더 속하는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다.”

(공폐단단, 2023성평등사회조성사업최종보고서)

(3) 여성이슈를 아트로 바꾸다

시각예술의 영역에서는 소외된 주체들의 자기표현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두드러졌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아이공은 ‘페미니즘 미디어 아티비스트 비엔날레’ 개최하여 임신·출산·모녀 관계 등 여성의 이슈를 미디어아트로 풀어냈다. 문화예술 관련 사업들은 여성 예술가들의 등용문을 마련하고, 예술이 운동의 장식이 아니라 운동 그 자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 여성재단이 함께 한 관련 사업 목록

연도	단체(시설)명	사업명
2016	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	페미니즘 미디어아티비스트 비엔날레 2016
2017	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	페미3.0프로젝트: 여성미디어아티비스트 워크숍
2019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불편한 연극>말하기 - 국가지원 연극의 성평등성 모니터링
2020	페미씨어터	제3회 페미니즘 연극제
2023	공폐단단	생존자랑댄스: 생존을 자랑하고 생존자와 함께하는 우리의 움직임을 통한 치유
2024	페미니즘연극제 운영위원회	제6회 페미니즘 연극제
2024	반니 (변경전: 공폐단단)	우리의 생존자랑 이야기 : 성평등을 기반으로 한 몸과 마음 치유 회복 프로젝트

3) 스포츠 : 운동장 위의 평등

스포츠 관련 사업들이 던진 질문은 단순했다. 누구나 운동할 수 있는가. 그 단순한 질문이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급진적인 것인지를 이 사업들은 실천으로 보여주고 있다. 누구나 있는 그대로의 몸으로 스포츠가 주는 감동을 누릴 권리, 여성이 자신의 신체적 한계에 도전하며 연대하는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졌다. 이 사업들은 그 권리를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경기장을 차리고 코스를 달리며 온몸으로 그것을 증명했다.

(1) 편견을 부수고 힘차게 날아오른 경기장의 순간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아시아 최초로 '프라이드 하우스' 개최를 준비했다. 이 프로젝트는 스포츠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올림픽이라는 글로벌 무대에서 제기했다.

“행사를 진행하고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사람들이 “참여 가능한 스포츠, 차별이 없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스포츠”에 얼마나 목이 말라왔는가를 계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리우올림픽 기간 동안 사람들은 성차별적인 해설과 중계에 분노하였으며, 성적소수자 선수들의 메달 획득 소식을 자기 일처럼 기뻐하였다. 퀴어문화축제의 프라이드하우스 부스에는 사람들이 줄을 이어 찾아오며 프라이드하우스에 대해 질문하였고, 자신의 스포츠 경험을 온/오프라인으로 공유하기도 했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2016성평등사회조성사업최종보고서)

2018년 언니네트워クの 퀴어여성게임즈는 ‘게임은 이미 시작됐다’는 슬로건 아래 많은 참가자를 모았다. 이 대회는 ‘여성이나 성소수자는 운동능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편견을 경기장 위에서 직접 해체했다.

“실 새 없이 펼쳐지는 셔틀콧 랠리에 관객들은 눈을 떼지 못했고, 1점 차로 추격전이 펼쳐진 농구 결승전에서는 탄성이 쏟아졌다. 아쉽게 넘어졌지만 끝까지 완주한 계주팀에게는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응원했다. 어느 스포츠 경기와 다름없는 모습들이었다. 그럼에도 분명하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 그동안 성별에 따라 신체 활동을 구분해온, 여성들은 체육활동에 흥미가 없거나 운동능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편견은 퀴어여성게임즈에 존재하지 않았다. 퀴어여성게임즈를 즐기는 누구도 ‘여성이기’에, 성소수자이기’에 어떠한 운동을 해야 하고 어떠한 움직임을 해야 한다’는 식의 고정관념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성별이 어떠하든, 성소수자이든 아니든 스스로의 신체적 한계에 도전하고 함께 어울리는 선수들이 있었을 뿐이었다.”

(언니네트워ク, 2018성평등사회조성사업최종보고서)

같은해 대전의 BOSHU는 여성주의 축구팀 ‘FC우먼스플레이잉’과 주짓수 클래스 ‘오버셋’을 운영하며 지역 페미니스트들을 스포츠로 연결했다. 운동장이 논쟁의 공간이 아니라 몸으로 연대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FC우먼스플레이잉은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페미니즘보다는 축구 자체에 관심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게 되었는데, 함께 단독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회식을 할 때 간간히 페미니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씩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하게 되고 그런 분들을 나중에 다른 강연에서 뵈 수 있게 될 때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BOSHU, 2018성평등사회조성사업최종보고서)

(2) 이제는 일상이 된 자기방어훈련

자기방어훈련은 스포츠 사업 중 가장 직접적으로 신체 주권의 문제와 맞닿아 있었다. 2020년 언니네트워ク와 2021년 파도의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은 물리적 방어 기술을 넘어 ‘자기 발견’을 출발점으로 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장애여성공감과 연대하여 젠더 포괄적인 훈련 모델을 고민하고, 워크북 ‘나우 파도’를 제작하여 공동체가 서로를 지키는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2017년 문화기획 달이 가부장성이 강한 농촌에서 진행한 셀프디펜스 집중훈련은 전국적인 호응을 얻으며, 자기방어가 도시 여성만의 이슈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 여성재단이 함께 한 관련 사업 목록

연도	단체(시설)명	사업명
2016	한국성적소수자 문화인권센터	젠더이분법 깨기: '여성다움'에 질문을 던지다
2017	한국성적소수자 문화인권센터	PRIDE HOUSE: 스포츠에서의 성평등
2017	문화기획달	농촌 페미니즘 활력 충전소
2018	언니네트워ク	모두를 위한 스포츠: 2018 퀴어여성 생활체육대회(가)
2018	BOSHU	페미스포츠 - '여성이 모이다, 몸을 깨우다'
2020	언니네트워ク	싸우고, 행동하고, 세상을 바꾸는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2021	파도(FADO)	Acting Like FADO!

05 교차성: 차이를 넘어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재단은 연령·장애·출신 지역이나 국가·성적 지향·혼인 여부 등 다양한 조건이 교차하는 여성들의 위치성을 고려해 차별을 개선하고자 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담으려 애썼다. 성소수자·이주여성·장애여성·비혼 여성·노인여성 등 각각의 사업들은 서로 다른 억압의 총위를 드러내면서도 모두를 주체로 호명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페미니즘이 누구의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은 곧 성평등 운동을 심화시키는 일이다. 이 사업들은 주류 여성 담론이 보지 못했던 자리를 기록하고, 들리지 않았던 목소리를 공론의 장으로 가져오며, 서로 다른 억압을 경험하는 이들이 교차적 연대 가능성을 열었다. 교차성은 이론이 아니라, 이 사업들이 실천한 운동의 방법이었다.

1. 성소수자 : 존재를 가시화하고 권리의 언어를 확장

성소수자 관련 사업들이 마주한 첫 번째 과제는 존재를 가시화하는 것이었다.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들은 단순한 차별 반대 구호를 넘어, 미디어·스포츠·종교·노동·가족이라는 다양한 영역에서 성소수자의 존재와 가능성을 각인시키고 권리의 언어를 만들어왔다. 일터와 교회와 운동장과 법정이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소수자에게 안전하고 평등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 선언이 이 사업들이 남긴 유산이다.

(1) 퀴어 페미니즘 미디어 : 우리의 언어로 말하다

2015년 레주파의 도레미 프로젝트는 도시에 사는 여성 성소수자들이 스스로 미디어 제작자가 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캠프형 미디어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언니네트워크는 누가 여성인지, 무엇이 여성다움인지를 규정하는 세상에 저항하는 액션 매거진 ‘ ’을 창간했다. 퀴어와 페미니즘을 결합한 이 매거진은 유가 판매와 텀블벅 모금에 성공하며 지속 가능한 독립출판 모델을 수립했다. 주류 미디어가 배제하거나 왜곡하는 방식으로 다루던 퀴어 페미니즘의 세계관을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언어로 전달하며, 퀴어 페미니스트들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강력한 네트워크 허브가 되었다.

“사진 찍어주는 것도 회원이고 디자인 편집해 주는 것도 회원이고 교정교열해 주는 것도 회원이고 다 그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친구들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글화 하자’라는 목표였어요. 우리가 교육도 해야 되고 개발도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아예 못할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총괄은 진짜 힘든.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총괄은 내부 운영진이 다 한 번씩 해봐야 된다가 원칙이었고 제가 창간 후 첫 총괄이었고 그 다음부터 다 돌아갔는데 한 번씩 다 돌아가고 나서 다 그땐됐거든요. 잡지에 대한 호응이 엄청났지만 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던 걸로 기억해요.”²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비온뒤무지개재단은 퀴어 페미니즘 관점의 시사 토크쇼 ‘권손징악’을 통해 트랜스젠더 혐오를 페미니즘으로 포장하는 논리와 선거 국면의 가짜뉴스를 논리적으로 반박했다. ‘케이팝을 퀴어링’ 프로젝트는 주류 미디어가 다루지 않았던 K-POP 산업 내 퀴어 팬덤 문화를 비평하며 퀴어 페미니즘 담론을 글로벌 네트워크로 확장했다.

(2) 스포츠 : 모든 몸이 운동장에 설 권리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아시아 최초의 ‘프라이드 하우스’를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프라이드 하우스’는 세계의 시선이 주목되는 올림픽을 통해 남성중심적이고 이성애 중심적인 스포츠 내 성적 편견을 깨고, ‘스포츠 내의 차별과 불평등’과 ‘스포츠 정신에 부합하는 동등한 권리’라는 두 가지 이슈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기획되었다. 주요 활동으로 국제 네트워크 강화, ‘컬링 대신 볼링대회’와 같은 참여형 스포츠 행사, 미디어 공론화 등이다. 정부의 지원 부재로 많은 난관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스포츠 안에서의 성평등 담론을 확산시키고 성소수자 친화적인 스포츠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사업은 ‘프라이드 하우스’ 운동의 방향을

² 활동가 인터뷰(2026년2월)

정립하며 한국 사회 성평등 기반을 넓히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다.

“토론토에서 ‘지배당한 나라들끼리 하는 올림픽’ 관련 프라이드 하우스 회의를 할 건데 여기 와서 같이 고민을 나누고 이야기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연락이 왔었어요. 거기서 리우올림픽에 참여할 브라질 성소수자 단체들, 일본 도쿄, 저희, 토론토, 영국 등에서 온 활동가들이 만났는데, ‘저희한테 너네도 프라이드 하우스 할 수 있어’ 한 거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타이밍인 거예요. 이전 러시아 소치올림픽에서 성소수자 억압으로 보이콧 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다음에 평창인 거라 너무나 상징적인 거죠. 또 아시아에서 프라이드 하우스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었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너무 필요하겠다 판단을 했습니다.”³

2018년 언니네트워크의 ‘2018 퀴어여성게임즈’는 315명의 참가자를 모으며 배드민턴·농구·계주·풋살 등 정식 경기를 치렀다. ‘모두를 위한 스포츠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경기장 위에서 직접 실천한 이 대회는 실력과 상관없이 자신의 몸과 운동에 대한 욕망을 표출하는 경험을 통해 성소수자 친화적인 스포츠 네트워크를 확장했다.

(3) 종교와 가족 제도 : 가장 보수적인 공간에서의 균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기독교여성연구원 홀다는 영페미와 교회 언니들이 함께 만든 기독교여성주의 입문서 ‘교회가 좀 불편한 너에게’를 출판했다. 성소수자를 포함한 약자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평등하게 존재할 수 있는 담론을 제시한 이 책은 가부장적 종교 문화에 대한 내부로부터의 균열이었다.

“홀다 임원들이 주축이 되어 책을 저술하고 여러 회의를 했지만 본 사업의 특징점은 영페미를 대거 참여시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한 관점으로 활동하는 기독교여성주의 기관이나 그룹들이 있지만, 홀다의 주 관점은 여성신학의 대중화와 영페미들과의 공고한 연대, 나아가서는 그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우리 교회 성평등 테스트”는 기획과 개발이 전부 영페미의 손에 의해(물론 교회 언니들과의 긴밀한 연계 하에) 이루어졌다. 영페미들과 함께 일하고, 회의하고, 울고 웃으며 보낸 8개월간 교회언니들은 이제 영페미가 제자나 조교들이 아닌 진정한 연대자이자 동역자로 보여지기 시작했다. 영페미들 역시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고 회의하고 일을 만들어가는 자로 본인들을 보기 시작했다. 이것이 가장 크게 우리가 성장한 점이자 앞으로의 미래를 만들어갈 지점이다.”

(기독교여성연구원 홀다, 2022성평등사회조성사업최종보고서)

2019년 보스턴피플은 비혼 및 성소수자 가구를 위한 생활동반자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세미나와 네트워킹을 진행했다. 2022년 한국여성민우회는 건강가정기본법상의 가족 정의 조항 삭제를 촉구하며 동성 부부 등 다양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모았다. 혈연과 혼인 중심의 법적 가족 정의가 성소수자를 포함한 다양한 삶의 방식을 배제하고 있다는 이 문제 제기는 가족 담론의 재구성을 요구하는 성소수자 운동의 핵심 의제다.

(4) 성소수자 정체성이 만나는 곳들

2022년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 노동자 인터뷰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고려하여 성소수자 노동자가 겪는 복합적인 차별 맥락을 분석하고, 이를 노동 정책 의제에 포함시켰다. 2019년 장애여성공감은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활동에 참여하며 장애인·이주민·성소수자 등 모든 소수자가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위한 ‘평등 장끼 자랑’캠페인을 전개했다. 서로 다른 억압을 경험하는 이들이 교차 연대하는 이 실천은, 성소수자 운동이 단독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평등의 운동 안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 여성재단이 함께 한 관련 사업 목록

연도	단체(시설)명	사업명
2015	레주파	도레미 프로젝트 (도시에 뜬 레인보우 미디어 프로젝트)
2016	한국성적소수자 문화인권센터	젠더이분법 깨기 : ‘여성다움’에 질문을 던지다
2016	언니네트워크	여성주의 액션 매거진 <언니네>
2017	한국성적소수자 문화인권센터	PRIDE HOUSE : 스포츠에서의 성평등
2017	언니네트워크	퀴어페미니스트매거진 < >
2018	언니네트워크	모두를 위한 스포츠 : 2018 퀴어여성 생활체육대회(가)
2018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 피해경험 재해석, 다른 삶의 전략 만들기
2019	보스턴피플	우리에게 조금 먼 가족이 필요해
2019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 피해경험 재해석, 다른 삶의 전략 만들기
2022	비온뒤무지개재단	페미니즘X퀴어 : 유튜브에 무지개를 띄우다

3. 활동가 인터뷰 (2026년2월)

연도	단체(시설)명	사업명
2022	한국여성민우회	똑딱똑딱, '가족' 법,제도,문화를 다시 짓다
2022	한국여성단체연합	다름과 닮음으로 함께 만드는 성평등한 일터 이야기
2022	기독교여성연구원 홀다	영폐미와 교회언니가 함께 하는 교회 내 성평등 탐구
2023	비온뒤무지개재단	퀴어 페미니즘으로 대중문화 읽기: 케이팝을 퀴어링
2023	기독교여성연구원 홀다	영폐미와 교회언니가 함께 하는 교회 내 성평등 탐구
2024	비온뒤무지개재단	온 세상에 성평등 무지개: 찾아가는 퀴어 페미니즘 플랫폼

2. 이주여성 : 시혜의 대상에서 동료시민으로

이주여성 지원사업의 핵심은 이주여성을 지원받아야 할 취약 계층으로 보는 시각을 해체하고, 이들이 스스로 말하고 기록하고 연대하는 주체이자 동료시민임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이 사업들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이라는 단일한 이미지 뒤에 가려져 있던 난민 여성, 귀환 동포 여성, 농촌 이주여성 등 다층적인 존재들을 가시화하며, 인종·성별·계급의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스스로 명명하고 극복해 나가는 여성주의 활동가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성과로 나아가게 했다.

(1) 수혜 대상에서 생산과 변화의 주체로

2015년 아시아이주여성다문화공동체의 가족소통 프로그램은 국제결혼 가족 내 의사소통 부재로 인한 폭력을 예방하는 데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같은 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이주여성 당사자를 성폭력 전문 상담원으로 직접 양성함으로써 ‘이주여성에 의한 이주여성 보호’라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냈다. 지원의 수혜자가 지원의 주체가 되는 이 전환은, 이후 이주여성 사업 전체를 관통하는 원칙이 되었다. 2016년 조각보의 ‘코리안 디아스포라 여성들의 말하기 대회-“여기에 우리도 있다, 전해라!”’는 중국·일본·러시아에서 귀환한 동포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겪는 차별을 직접 증언하는 자리였다. 이 여성들은 오랫동안 ‘3D 업종 저임금 노동자’로 타자화되어 왔다. 귀환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이방인으로 취급받는 이중의 소외를 겪어온 이들이 자신의 삶을 공적으로 증언하는 것 자체가 운동이었다. 이 대회는 이주동포 여성들이 글로벌 여성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번 ‘여기에 우리도 있다, 전해라! 코리안 디아스포라 여성들의 말하기 대회’ 행사를 연 취지는 여성들이자 이주민인 사람들에게 어떠한 차별과 폭력이 가해지는지 알리고 이주동포여성들 스스로가 여성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이주동포 중 절반 이상이 중국, 일본, CIS(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국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약 80만 명 정도가 국내 귀환 후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3D업종에 종사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번 행사를 통해서 매번 타자화되고 일반화되어 하나로 묶이는 이주동포여성이라는 그룹 내에는, 다양한 개개인들이 존재한다 걸 알고 싶었습니다.”

(조각보, 2016성평등사회조성사업최종보고서)

2018년 일다는 이주여성 섹슈얼리티 기록을 통해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저출산 해소 도구’나 ‘아이 낳는 사람’으로 대상화되는 현실을 정면으로 고발했다. 신체 주권과 섹슈얼리티 결정권이 이주여성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 선언은 재생산권 담론의 사각지대를 채우는 작업이었다.

(2) 난민 여성 : 긴급 구호를 넘어 삶의 서사로

2019년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의 난민 여성 그림책 만들기 프로젝트는 이주여성 담론을 새로운 방향으로 확장했다. 난민 여성들은 긴급 의료 지원이 필요한 구호의 대상으로만 다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 사업은 그 시각을 뒤집어, 난민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과 트라우마를 그림책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과정은 심리적 치유의 공간이 되었고, 완성된 그림책은 한국 시민들에게 난민의 존재를 이웃으로 각인시키는 매개가 되었다. 상담자에게 의존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비전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 이 사업이 거둔 가장 중요한 변화였다.

(3) 복합차별의 가시화와 재난 대응

2020년 농촌페미니즘연구회는 농촌 이주여성들을 생산의 주체인 여성농민으로 재정의하며, 매매혼적 시선과 가부장적 농촌 성문화라는 이중의 억압을 공론화했다. 2021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체류 자격 문제로 정부 지원에서 배제된 이주여성들에게 긴급 생필품과 생계비를 지원하는 한편 '재난지원금은 호의가 아닌 권리'임을 당사자들과 함께 외치는 인권 캠페인을 전개했다. 2022년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주 배경을 가진 여성 노동자들이 성별·인종·체류 자격이 얹힌 복합차별을 겪고 있음을 공론화하며, 차별을 개인의 능력 부족이 아닌 사회 구조의 문제로 재해석했다.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이 지원되었지만 이주여성들에게는 닿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코로나는 외국인들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위기였습니다. 이주여성은 한국사회에서 주민이자 시민이자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으나 위기 앞에서 오히려 위기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한국사회에 알리고 모두에게 평등한 방역과 모두가 상생하는 재난지원금이 될 수 있도록 인권캠페인을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와 주한몽골여성총연맹 등과 연대하여 개최하였습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021성평등사회조성사업최종보고서)

☑ 여성재단이 함께 한 관련 사업 목록

연도	단체(시설)명	사업명
2015	아시아 이주여성 다문화 공동체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가족소통프로그램 '우리 가족이 달라졌어요'
2016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여성에 의한 이주여성 인권 보호 활동을 통한 성인종 평등사회 구축 프로젝트
2016	조각보	여기에 우리도 있다, 전해라! 코리안 디아스포라 여성들의 말하기대회
2018	일다	여성의 섹슈얼리티 담론을 확장하라
2019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난민 여성의 그림책 만들기 프로젝트 : 이야기 책
2020	농촌페미니즘연구회	일터, 삶터에서 성평등한 농촌을 위한 농촌페미니즘의 역량강화
2021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재난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평등 안전망 만들기
2022	한국여성단체연합	다름과 닮음으로 함께 만드는 성평등한 일터 이야기

3. 장애여성 : ‘보호’라는 이름의 통제를 넘어

장애여성 관련 사업들이 직면한 가장 근본적인 과제는 ‘보호’와 ‘폭력’의 경계를 다시 그리는 것이었다. 장애여성에게 가해지는 통제는 흔히 보호와 사랑의 언어로 포장되어 있었고, 바로 그 때문에 더욱 견고하였다. 장애여성 관련 지원사업들은 이제 통제와 보호를 넘어서 자기결정권의 존중, 피해를 넘어서 삶의 전략 수립, 그리고 제도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알리고 있다.

2015년 장애여성공감은 재생산권 담론에서 장애여성이 차지하는 자리를 근본적으로 재설정했다. 장애여성이 자신의 신체와 건강에 대한 주체적인 결정권자임을 선언한 것이다. 이 선언은 재생산권 논의가 비장애인 여성의 경험만을 중심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같은 단체가 진행한 ‘피해 경험 재해석과 다른 삶의 전략 만들기’는 친밀한 관계 내 일상적 통제의 실체를 드러냈다. 2년간 363건 이상의 기획 상담을 통해 연애·외출·휴대폰 사용에 대한 ‘보호’라는 이름의 제약이 어떻게 장애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체계적으로 박탈하는지를 기록했다. ‘만세팀’과 ‘사진반’같은 자조모임을 통해 당사자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동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것은,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질적 성과였다.

“이제 저희가 발달장애 여성분들 되게 자주 오시는데, 뭐 예를 들어서 ‘브래지어를 벗고 자고 싶은데 가슴이 처진다고 못 벗게 한다’ 혹은 ‘활동 보조인을 바꾸고 싶은데 활동 보조인이 이모라서 못 바꿔요’처럼 되게 사소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것들을 사실 잘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마냥 그런 사례들은 사실 폭력으로 설명드리기 좀 어렵잖아요. 분명하게 인권침해인 건 맞고 차별인 건 맞지만 이거를 어떤 제도권 내 언어로서 설명할 수 있을까 정리하는 담론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실질적인 상담 활동도 필요했지요.”⁴

2023년 대구여성장애인연대는 발달장애여성의 성적 권리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다. 무성적 존재로 여겨져 온 발달장애여성이 사랑하고 욕망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선언, 그리고 온라인 그루밍과 가스라이팅을 식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교육의 결합은 섹슈얼리티 권리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알렸다. 같은 해부터 시작된 사람과평화의 특수학급 성인권 교육은 성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던 학생들에게 자존감 향상과 성폭력 민감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담당 교사들의 성인지 감수성까지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발달장애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지원은 많지만, 20대에 접어들어 성인이 되고, 성인으로서 당연히 생겨날 수 있는 발달장애여성들의 자연스러운 성과 사랑에 대한 인식은 많지 않습니다. 여성장애인은 무성적인 존재로 취급되기 일쑤이고, 발달장애여성들은 장애의 특성상 끊임없이 성폭력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성폭력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사랑이라 믿고 돈과 몸을 착취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사업은 이성애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같은 아픔을 가진 동료들을 만나서 느낄 수 있는 우정과 환대의 경험 또한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매우 뜻깊었습니다. 집안에 갇혀 통제당하는 삶을 주로 살고있는 발달장애여성들이 처음 경험하는 일들도 많았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후기들을 많이 남겨주어 누군가에 의해서든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대구장애여성연대, 2023성평등사회조성사업최종보고서)

☞ 여성재단이 함께 한 관련 사업 목록

연도	단체(시설)명	사업명
2015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2018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 피해경험 재해석, 다른 삶의 전략 만들기
2019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 피해경험 재해석, 다른 삶의 전략 만들기
2023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나도 사랑을 하고 싶어요", 발달장애여성들의 안전한 성과 사랑을 위한 동행
2023	사람과 평화	'알성달성(알아가는 성인권, 달리보는 성인권)' 그림책을 활용한 장애인 성인권 교육
2024	사람과 평화	'알성달성(알아보는 성인권 달리보는 성인권)'

4. 활동가와의 인터뷰(2026.1월)

4. 정상가족 너머의 권리 : 비혼·한부모·미혼모

비혼여성과 한부모·미혼모 관련 사업들은 정상가족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낙인과 배제에 맞서는 것이었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 혼인 밖에서 아이를 낳은 여성, 배우자가 없는 여성 등. 이 모든 이들은 혈연과 혼인 중심으로 설계된 사회 제도에서 끊임없이 '비정상'으로 규정되어 왔다. 재단이 지원한 비혼여성 사업들은 그 규정에 저항하며 다양한 삶의 방식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함을 말하고 있다.

(1) 비혼을 선택으로, 자립을 권리로

2019년 보스턴피플은 두 가지 작업을 동시에 진행했다. 비혼 1인 가구 여성들에게 돈·주거·식생활·정신 건강 등 자립에 필요한 실무 정보를 제공하는 '독립생활개론'과, 생활동반자법의 사회적 수요를 조사하고 비성애적 동거 관계를 설명할 언어를 발굴하는 정책 제안 활동이었다. 일상의 자립과 제도의 변화를 동시에 추구한 이 이중 전략은, 비혼여성 운동이 생활의 문제이자 정치의 문제임을 보여주었다. 같은 해 '생활동반자를 찾는 밤'행사는 고립되지 않는 건강한 비혼 생활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자리였고, 이후 자생적인 후속 소모임들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참가자들의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법안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균일하게 형성되어 있었다. 청년 연구를 하는 사람, 복지 운동을 하는 사람, 성소수자 이슈에 관심이 있는 사람,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 등 관심과 활동 분야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고 각자 삶의 경험, 직업, 활동, 연구 분야 등을 기반으로 다각도의 토론이 가능했다.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아이디어가 풍부하여 이야기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풍성한 토론이 가능하였다.”

(보스턴피플, 2019성평등사회조성사업최종보고서)

2022년 한국여성민우회는 혈연·혼인 중심의 법적 가족 규정으로 인해 비혼 가구가 직장 내 복리후생과 의료 보호자 권리에서 배제되는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정의 조항 삭제와 연결하여 요구하는 국회 토론회와 집회를 이어갔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두잉 사회적협동조합의 '탈연애·비혼·공동체' 인식론 교육은 파편화된 개인 페미니스트들을 연결하며 이성애 중심적 관계 각본 밖에서의 삶을 상상하는 공간을 열었다. 2023년부터 비비사회적협동조합은 중장년 비혼 여성 1인 가구의 노후를 위한 공동체 주택 건립을 추진하며, 노년의 돌봄을 혈연이 아닌 스스로 선택한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는 새로운 모델을 실험하고 있다.

(2) 한부모·미혼모 : 낙인을 거부하고 주체로 서다

한부모와 미혼모 관련 사업들은 '불쌍한 대상'이라는 낙인을 거부하고, 당사자들이 직접 운동의 주체로 성장하는 과정을 지원했다. 재단의 초기 신생단체 지원은 한부모단체의 인큐베이팅에 비중을 두었으며, 단순한 경제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한부모 당사자들이 활동가로 성장하는 과정을 도왔다.

2015년 인천한부모가족센터가 소외되어 있던 남성 한부모들을 '한울타리' 자조모임으로 조직화하여 운영위원으로 참여시킨 것은, 한부모 운동이 특정 성별에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도움을 받은 한 부모들이 작게나마 성금을 모아 재단에 기부하는 '희망순가락' 사업은 수혜자에서 기부자로의 전환이라는 감동적인 사례를 남기기도 하였다.

2016년 미혼모협회 인트리는 미혼모들이 자아를 찾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의지를 키우는 여성학 강좌와 직업 교육을 지원했다. 경희사이버대학교와 협약하여 66명의 미혼모가 학업을 시작하게 돕고, 미혼모 차별 방지 협약과 지역사회 인식개선 활동을 통해 사회적 편견에 맞섰다. 사업 당시 회원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은 이 사업이 미혼모들에게 안심하고 모일 수 있는 거점이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2017년 부산한부모가족센터는 활동가 중심의 형식적 행사 대신 한부모 당사자들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한 번 한부모는 영원한 한부모다'라는 꼬리표에 맞서 당당히 자신을 드러내고 이해를 구하는 '말하기'를 통해, 당사자들이 임파워링되는 경험을 만들어냈다.

“예전에 한부모 행사에서 지인이 오는 걸 보면 자리를 피하거나 회피했었다. 오늘 먼저 다가가 참여를 유도하는 내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놀라웠다. 그들도 짐작은 하고 있었던지 오히려 고맙다고 했다. 지금 속이 평린 기분으로 편안하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행사 참여에 임하겠다.”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참여자, 2017성평등사회조성사업최종보고서)

☑ 여성재단이 함께 한 관련 사업 목록

연도	단체(시설)명	사업명
2015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큰)가족이 되기 위한 한(큰)걸음
2016	미혼모협회 인트리	새로운 반의 시작
2016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우리는 한가지
2017	부산한부모가족센터	도약을 뛰어 넘어 꿈이 현실로
2019	보스턴피플	우리에게 조금 먼 가족이 필요해
2020	두잉 사회적협동조합	네가 어디 있든 우리는 연결될거야
2021	두잉 사회적협동조합	네가 어디 있든 우리는 연결될거야

연도	단체(시설)명	사업명
2022	한국여성민우회	똑딱똑딱, '가족' 법,제도,문화를 다시 짓다
2023	비비 사회적협동조합	여성의 주거권 확보와 여성주거공동체 건립을 위한 도전
2024	비비 사회적협동조합	여성의 주거권 확보와 여성주거공동체 건립을 위한 도전

5. 노인여성 : 상실과 쇠락의 언어에서 해방

노인여성 관련 사업들이 마주한 가장 근본적인 과제는 ‘노년’을 상실과 쇠락의 언어에서 해방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해방은 기록에서 시작되었다. 노인여성 관련 사업들은 배움의 기회를 빼앗긴 비문해 여성에서 디지털 시대의 창작자, 페미니즘 독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노년 여성의 얼굴을 가시화하며, 노년이 상실의 시간이 아닌 자신의 언어를 되찾고 주체로 서는 시간임을 보여주었다.

(1) 노년 담론의 재구성 : 상실이 아닌 전환으로

2015년 한국여성민우회의 ‘멋진 할머니 되기 프로젝트’는 40~60대 여성들이 성별화된 노후 불안의 실체를 파악하고 가족 밖에서의 독립과 연대를 꿈꾸는 대안적 노후 담론을 형성하는 장이었다. ‘노상파티’를 통해 세대를 넘어선 여성들의 연대 가능성을 확인한 이 사업은 노년을 혼자 감당해야 할 운명이 아닌 함께 설계할 수 있는 삶으로 재정의했다. 2018년 일다의 섹슈얼리티 기록은 60대 여성을 포함하여 노년의 자유로운 성적 실천과 욕망을 공론화하며, 노인여성이 무성적 존재라는 편견에 균열을 냈다.

“노년 사업을 담당하게 되면서 처음 고민이 되었던 지점은 ‘노년’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막막함이었다. 때마침 동창회가 있어 오래 친구들을 간만에 만났다. 서로 이런저런 안부를 주고 받다가, 질문을 던졌다. “70대가 되면 어떨 것 같냐”고. 그 질문을 들은 친구들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좋은 날 왜 그런 질문을 하냐”는 친구부터, “할머니가 된다고 생각만 해도 너무 우울하다, 딱 마흔까지만 살고 싶다.”는 친구까지. 그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늙는다는 건 초라하고 슬프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 역시 그랬다. 왜 이런 광경이 펼쳐지는 것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할머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고정되어 있다. 폐지줍는 할머니, 몸빼바지, 할일없이 하루종일 TV만 보는 모습. 인정사정없는 시어머니까지. 한마디로 가난하거나, 할일없거나 가족에게 집착하거나 그 셋 중 하나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사업 기획을 하면서, 역설적인 의미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머리 걱정 없는 노년을 상상하다’라는 부제를 붙이게 되었다.”

(한국여성민우회, 2015성평등한사회만들기지원사업최종보고서)

(2) 배움의 기회를 빼앗긴 여성들: 비문해여성의 자기 선언

2015년 가톨릭여성회관은 가난과 성차별로 배움의 기회를 놓쳤던 여성들이 글을 배우는 과정에서 성평등 인식을 키우고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서는 과정을 지원했다. 한글을 처음 익힌 손으로 자신의 이름을 쓰는 그 순간은 단순한 교육의 완성이 아니라, 평생 타인의 언어로 살아온 삶에서 자신의 언어를 되찾는 선언이었다. 이 여성들은 글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연극 활동을 통해 자기 삶의 이야기를 무대에 올리며 지역사회 성평등 캠페인의 주체로 성장했다.

비문해 여성들의 이야기는 노인여성 담론이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여성이 글을 배우지 못한 것은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가난하면 딸은 학교에 보내지 않았던 시대의 성차별적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이 사업은 그러한 구조를 가시화하고, 늦게나마 자신의 목소리를 갖게 된 여성들의 성장을 기록했다.

“비문해 여성들에게 성평등 교육을 하면서, 성평등캠페인·북카페공간개조·연극동아리구성·성평등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사업을 시도했었다. 주어진 예산에서 최대한 알차고 재미있게 진행하려고 노력하였다. 더불어 비문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평등 의식 전환 및 여성주의 실천 활동을 만들어 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많은 질문과 과제가 남기도 했다. 당사자들은 원하는가? 행복한가? 파급력은 과연? 많은 질문들 속에서도 놓치고 싶지 않았던 중요한 명제는 참여하는 모든 여성들이 ‘자신 삶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싶었다. 바로 지금 당장의 변화는 아닐지라도 그 변화의 시작이었으면 했다.”

(가톨릭여성회관, 2015성평등한사회만들기지원사업최종보고서)

(3) 새로운 문화와 교육의 주체로

2020년 유토피아의 스마트폰 사진 프로젝트는 디지털 소외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돌파했다. 춘천 지역의 80대 최고령 수강생을 포함한 여성 노인들이 직접 찍은 사진으로 ‘자기만의 꽃밭’전시회를 개최한 이 사업은, 노인여성을 디지털 문화의 수동적 소비자가 아닌 능동적 창작자로 세웠다.

같은 해 문화기획단은 남원의 60대 여성들이 페미니즘 독서모임에 참여하여 ‘백래시’ 등의 개념을 배우고 자신의 삶을 날카롭게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세대의 경계를 넘을 수 있음을 증명했다.

2017년 익산여성의전화는 중장년 여성들이 전래동화와 설화를 성평등한 관점으로 개작하여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할머니’ 활동을 시작했다. 이 활동은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부설기관 ‘숨리굴이 이야기지킴이’로 전환되어, 중장년 여성들에게 성평등 강사로서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제시했다. 이야기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 성평등의 씨앗을 심는 동시에, 이야기를 전하는 중장년 여성 스스로도 역량 있는 활동가로 성장하는 이중의 성과를 거둔 사업이었다.

(4) 요양시설 안팎의 노년 돌봄을 돌아보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은 노인요양시설 안팎의 돌봄 경험을 여성주의적으로 기록하고 해석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요양보호사들이 현장에서 발휘하는 창의적 돌봄 실천을 ‘시민적 실천’으로 재의미화한 포토에세이북과 온라인 전시는, 이들을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전문적인 돌봄의 주체로 재조명했다. 또 노년 돌봄을 ‘효도’나 ‘희생’이라는 상투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입체적인 삶의 과정으로 재현했다. ‘집 대 사실’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비판하고, 존엄한 노년과 돌봄은 젠더 구조와 가족 규범의 대전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공론화했다. 워크숍에 참여한 이들은 “내 속에 쌓인 것들을 글로 쓰며 정리하고 위로받았다”고 증언하며 시민 주체로서의 힘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늙음과 죽음이라는 무거운 이야기가 바로 제 이야기여서 제목 ‘보호자라는 질문’ 자체로 만감이 몰려왔고요. 가부장 사회에서 많은 젠더이슈를 피할 수 없는 영역일 것이고, 그만큼 할 일이 많을 거라고 봐요. 당사자가 감당하고 있는 맥락이 너무 복잡하고 버거워서, 저로서는 정리가 잘 안되어 있고, 그래서 오늘 보탬 이야기는 없었어요. 발표내용 중 보호자에 관한 부분에서 제가 공감하는 내용을 들을 때는 치유받는 느낌이었고, 노년돌봄의 현실 문제에서는 또한 갑갑해지고 했네요.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참여자, 2022성평등사회조성사업최종보고서)

☞ 여성재단이 함께 한 관련 사업 목록

연도	단체(시설)명	사업명
2015	한국여성민우회	<멋진 할머니 되기 프로젝트>
2015	가톨릭여성회관	비문해 여성들을 위한 성평등 인식향상 프로그램
2017	익산여성의전화	중장년층 여성과 함께 하는 성평등한 동화구연 사업
2018	일다	여성의 섹슈얼리티 담론을 확장하라
2020	여성주의 사진그룹 유토피아	지방 노년 여성, 여성 청소년 사진 프로젝트 : 자기만의 꽃밭
2020	문화기획달	여성주의 문화살롱 '라이딩 더 울프(Riding the wolf)'
2021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재난과 성별화된 돌봄위기를 통과하며
2022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재난과 성별화된 돌봄위기를 통과하며

06

지역과 글로벌 : 어디서든 어디까지든 풀뿌리에서 국제 연대까지

재단의 성평등 운동이 서울의 광장과 온라인 공간을 넘어 지역의 마을 회관과 국제기구의 회의장으로 확장된 것은, 운동의 언어가 더 많은 삶의 현실과 접속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지역 사업들은 수도권 중심의 페미니즘 담론이 닿지 못했던 자리에서 풀뿌리 운동의 거점을 만들었고, 글로벌 사업들은 국내에서 막힌 통로를 국제사회를 통해 우회하거나 한국의 경험을 세계와 나누며 연대를 확장하는 등 운동의 외연을 넓혔다. 두 방향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같은 질문을 향하고 있었다. 성평등 운동이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는가.

1. 지역 : 서울 밖에서도 페미니즘은 자란다

지역 사업들이 마주한 첫 번째 과제는 고립으로부터의 탈출과 연대였다. 수도권 밖에서 페미니즘 활동을 하는 여성들은 동료 찾기 더 어려웠고, 지역 권력의 가부장성은 더 강했으며, 제도적 지원은 더 빈약했다. 이 사업들은 그 고립을 해소하는 것에서 출발했다.

(1) 제도를 바꾸는 힘 : 정책 감시와 거버넌스

2014년 창원여성살림공동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과 조례 제정 참여, 2015년부터 2016년까지 15개 광역시도의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며 지역 활동가들을 연결한 전국 성인지예산 네트워크 구축은 지역사업이 제도를 바꾸는 실질적인 힘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만난 여성들은 성인지정책에 대해 관심은 있지만 어떻게 참여하고 개입해야될지 어려움이 많은데, 성인지넷의 연간 활동을 참여하면서 지역에서 어떻게 역할을 할지를 모색할 수 있었다고 함. 또 지방의회 여성의원 네트워크에서도 성인지넷의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내용을 참조로 시정질의,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하게 다룰 수 있었다고 함. 그리고 광역 지방자치단체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정보공개했을 때 반응은 대체로 ‘이제까지 아무도 관심없는 줄 알았는데 NGO가 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어떤 영향을 가질지의 긴장감’이 느껴졌음. 앞으로 계속 NGO의 입장에서 성인지정책에 대한 관심을 지방자치단체에 보낼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생각이 듭.”

(성인지예산네트워크, 2015성평등한사회만들기지원사업최종보고서)

2015년 동북여성민우회는 서울 도봉 지역에서 ‘풀뿌리 여성학교’를 운영하여 지역 여성들이 어린이집과 데이케어센터를 직접 모니터링하고 구의회를 방청하며 정책 형성의 주체로 참여하게 했다. 일상의 돌봄 시설에서 지방의회까지, 여성들이 직접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는 생활정치의 모델이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전개된 경남여성단체연합의 성과는 지역 사업이 어떤 제도적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경남지역 정책 감시 활동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폐지되었던 양성평등기금을 부활시키고 경남여성가족재단 설립을 이끌어냈다. 창원·김해·진주의 활동가들이 연대하여 지방정부 조례를 모니터링하고 정책 제안서를 제출한 이 사업은 지역 시민사회가 지방 행정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진주여성민우회는 경남여성단체연합과 함께 2017년 일반 시민들이 매일 접하는 TV 광고를 성평등 관점으로 분석하는 미디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지역 내 보고회를 개최했다. 2018년에는 2030 세대의 페미니즘 스테디를 지원하고, 지방선거 국면에서 여성 정치 참여 확대와 성인지 관점의 의정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치 아카데미를 운영했다. 경남이라는 보수적인 지역에서 선거와 미디어를 페미니즘의 언어로 분석하는 활동가들을 키워낸 것이었다.

(2) 일상을 바꾸는 힘 : 마을에서 시작된 페미니즘

2014년 군포여성민우회의 ‘레알 페미니스트 프로젝트’는 군포·안양·의왕 지역 주민 1,400여 명이 참여하여 가부장 문화 극복 사례집을 제작하고 여성주의 마을 축제를 여는 사업이었다. 전단지나 강연이 아니라 마을 축제를 통해 성평등의 언어를 일상으로 가져온 이 시도는, 페미니즘이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활동이 아니라 마을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016년 문화기획 달은 가부장적 농촌 마을에서 페미니즘 캠페인을 벌였다. 이러한 활동은 남성 주민들의 거친 항의와 물리적 방해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개인적 대응 대신 집단 연대와 공론화를 선택했고, 이 과정에서 오히려 지역 내 페미니스트 동료들을 발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는 개인적 차원의 일대일 대응보다 집단연대를 통한 공론화라는 방식을 택했다. 이것은 여성주의저널 ‘일다’에 이번 캠페인을 알리는 연재 기사를 내면서 터득한 방식인데, 마을의 문제를 마을 밖으로 가져갔을 때 오히려 캠페인의 원동력이 되는 지지기반을 확보할 수 있음을 경험했다.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여성들, 이미 농촌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던 여성들, 그리고 전국의 페미니스트들의 지지와 응원은 달지기들이 위축될 때마다 힘이 되었다. 농촌에서는 삶의 지지기반인 관계의 역학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탓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머뭇거리면서 갈등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외부에서 지지기반을 만들고 다시 마을로 돌아왔을 때, 오히려 캠페인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지고 관계에 함몰되기보다 개인이 주체적으로 행동에 나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후 우리는 비난이나 공격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SNS를 통해 알렸고, 사건을 함께 이야기하며 여성들과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문화기획달, 2016성평등사회조성사업최종보고서)

2020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여성농민이자 청년여성이 시선으로 마을 운영의 근간인 규약 자체를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다. 강원, 경남, 경북, 전북, 제주 등 5개 도 5개 지역 마을에서 성별 불평등한 규약을 찾아내고 개정 논의를 시작하여 남성 이장과 마을 리더들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냈다. 1,235명의 여성 농민이 참여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농촌 전담부서 설치 등의 의제를 공론화한 것은, 농촌 여성운동의 의제를 제도화와 정책화로 연결하는 성과였다.

“마을규약 만들기 사업을 2년차 진행하고 있는 제주의 이야기, 마을규약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마을회의를 남겨준 시점에서 함께 한 분들이 자리를 마련하고 서로의 소감과 소회를 나눈다. 그 가운데 나이드는 남성 어른부터 젊은 여성농민까지 함께 한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다. “한 집에 한 표를 주는 마을도 많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마을은 1명의 주민에게 1표씩 주어지고, 개발위원회에도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어 멋진 공동체라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이런 계기가 되어 더욱 여성들이 잘 남성들과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2020성평등사회조성사업최종보고서)

같은 해 농촌페미니즘연구회는 농촌 현실에 맞는 성평등 교육 교안을 개발하며 이주여성 농민의 문제를 함께 다루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을 단순한 사업 수혜자가 아닌 '생산의 주체인 여성농민'으로 호명하며, 매매혼적 시선과 가부장적 농촌 성문화라는 이중의 억압을 공론화했다. 농촌 페미니즘의 범위가 내국인 여성을 넘어 이주여성까지 확장되는 순간이었다.

(3) 청년페미니스트들의 지역네트워크

2018년 대전의 BOSHU는 여성주의 축구팀 'FC우먼스플레이잉'으로 흩어진 청년 페미니스트들을 결속시켰고, 2019년 충북의 행동하는 페미니스트는 선배 활동가와 영영페미들을 잇는 '페미총회'를 개최하며 지역 운동의 계보를 이었다. 2018년 부산의 BRIDGE는 1985년부터 2005년까지 부산 지역 대학 여성운동의 타임라인을 완성하고 활동가 30명을 인터뷰하여 세대 간 운동의 계보를 이었다.

“저희도 근데 되게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보슈라는 이름을 2025년까지 갖고 있었다는 게 굉장히 큰 힘이고 다행이다 생각해요. (중략) 지역에 사는 친구들 활동하는 친구들은 여건만 되고 뭔가 기회만 되면 여기서 살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그 친구들이 계속해서 여기에 살면서 여기 있는 여성들을 책임진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중략) 예를 들면 재단도 어떤 순간에는 돌봄이나 성폭력 이런 지정주제처럼 한 번 정도는 기획주제가 지역이 되어야 한다고도 생각하구요”⁵

지역 사업들은 가부장적인 지역 권력에 균열을 내고, 소외된 지역 여성들의 목소리를 기록하며, 지역 활동가들을 연대로 묶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페미니즘이 서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군포의 마을축제, 대전의 운동장, 제주의 마을회관, 진주의 야외 상영회, 마산의 공장에서도 자라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성장을 지지한 것이 이 사업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다.

📌 여성재단이 함께 한 관련 사업 목록

연도	단체(시설)명	사업명
2014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성평등은 제도보다 참여와 실천으로 이뤄낸다
2014	군포여성민우회	<레알페미니스트프로젝트 : 여성주의, 일상이 되다>
2015	성인지예산 전국네트워크	젠더브릿지 역할을 통한 성주류화 전략 실효성 강화
2015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성평등 세상을 꿈꾸는 풀뿌리 여성학교
2016	문화기획달	농촌 성문화 다시보기 "이제 통치지 말자"
2016	한국성인지예산 네트워크	지역 성인지정책 참여활동 응원 플랫폼 구축사업 - '성 주류화는 경계가 없다'
2017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 페미들아, 담쟁이가 되어 벽을 넘고 평등과 상생의 세상으로 가자!
2018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페미! 일.단.만.나! (경남페미! 일상의 단단한 페미니즘을 만나다!)
2018	BOSHU	페미스포츠 - '여성이 모이다, 몸을 깨우다'
2018	BRIDGE	특명, 언니를 찾아랏!
2019	행동하는페미니스트	페미찾아삼만리
2020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	여성농민/청년여성이 그리는 성평등 마을 설계도
2020	농촌페미니즘연구회	일터, 삶터에서 성평등한 농촌을 위한 농촌페미들의 역량강화

5. 활동가 인터뷰(2025년12월)

2. 글로벌 : 국내에서 막힌 길을 세계로 열다

이 시기 글로벌 사업들이 수행한 역할은 두 방향으로 나뉜다. 하나는 국내 성평등 정책의 퇴행을 국제기구를 통해 압박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한국 페미니즘의 경험과 언어를 다른 나라의 페미니스트들과 공유하고 연대하는 것이었다. 이 두 방향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국내 성평등 운동의 지평을 확장해왔다.

(1) UN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과 연대

국제기구 대응 사업에서 가장 먼저 상징적인 성과를 거둔 것은 청소년페미니즘모임(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전신)이었다. 2019년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은 스쿨미투 고발자들의 요구를 모아 UN아동 권리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했고, 이는 국내에서 학교와 교육청의 벽에 막혔던 청소년들의 요구가 국제사회를 통해 한국정부에 대한 공식 권고로 돌아온 것이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제네바 현지에서 UN CEDAW 위원들에게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와 성평등 추진체계 후퇴 실태를 직접 보고하여 실효적인 권고를 이끌어냈다. 2025년에는 베이징행동강령 30주년을 맞아 시민사회보고서를 작성하고 APWLD 등 국제 연대 단체에 전달하여 한국의 성평등 의제를 세계적으로 확산한 것도 중요한 성과이다. 2021년 평화를만드는여성회의 'Women's Korea Peace Appeal'은 여성과 일상의 관점을 담은 한반도 평화 선언문을 글로벌 평화 이니셔티브로 확장했다.

(2) 국경을 넘는 성폭력 생존자들의 연대

초국적 젠더폭력에 대한 연대도 이 시기 글로벌사업의 의미있는 성과이다. 2015년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콩고 내전 성폭력 피해자와 필리핀 기지촌 여성 활동가를 초청하여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현재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시 성폭력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한 이 자리는 생존자 간 연대가 국경을 넘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콩고에서 생존자를 불러다가 한 심포지엄이었어요. 처음으로 아프리카 분쟁의 성폭력 피해자를 처음 부르는 심포지엄을 저희가 한 거였거든요. 필리핀 군사주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필리핀에 있는 여성도 부르고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했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당시에는 비자 문제부터 여러 가지 부분이 쉽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어쨌든 국제적인 연대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에 진짜 많이 변화가 있었어요.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도 많이 변했고.”⁶

2025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베트남 현지 조사는 한국 남성 중심의 온라인 성착취 구조가 베트남 현지의 오프라인 착취와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규명하며 초국적 젠더 폭력 대응의 발판을 마련했다.

(3) 전혀 예상치 못한 온라인 페미니즘 콘텐츠에 대한 국제적 호응

한국 페미니즘 콘텐츠의 세계적 확산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케이팝을 쿼어링'은 영문 자막을 통해 해외 시청자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리며 한국의 쿼어 페미니즘 담론을 글로벌 네트워크로 확장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아시아 최초 프라이드 하우스 운영을 목표로 활동한 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는 상하이·타이베이·도쿄 등 아시아 네트워크와 교류하며 스포츠 내 성적 다양성 이슈를 글로벌 의제로 만들었고, 2019년 ILGA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쿼어여성게임즈의 성과는 전 세계 쿼어 페미니스트 활동가들과 공유되었다.

일다의 기사는 영문으로 번역되어 세계 페미니스트 진영과 공유된 것도 같은 흐름이었다. 일다는 번역 전문가들의 헌신적인 기여를 바탕으로 영문사이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기사마다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국외 거주 페미니스트들의 많은 관심을 얻고 있다.

6. 활동가 인터뷰(2026년2월)

“OOO(전문성과 여성학 베이스를 가진 국내 거주 외국인)이 10년 가까이 번역 혹은 검수를 해주고 있어요. 초기에는 아예 보상이 없었고 지금은 아주아주 약간의 보상을 해드리지만, OOO이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좀더 많이 뛰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이 기사를 제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외국에 나간 한국인들이예요. 특히 연구자거나 뭐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일대를 소개하기가 좋잖아요. 그러면서 영문사이트를 통해서 해외 필자들도 더 발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자기도 번역을 하겠다라든지 하면서 필자로서도 정보제공자로서도 연결이 많이 되었어요. 지금은 외국에 나가 있는 한인이 워낙 많고 또 어떤 기사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끼리 서로 공유하는 문화 그런 게 있잖아요. 한 번 뜨면 이제 좀 이슈가 되기도 하고.”⁷

☞ 여성재단이 함께 한 관련 사업 목록

연도	단체(시설)명	사업명
2015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글로벌여성행동네트워크
2017	한국성적소수자 문화인권센터	PRIDE HOUSE: 스포츠에서의 성평등
2018	언니네네트워크	모두를 위한 스포츠: 2018 퀴어여성 생활체육대회(가)
2019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스쿨미투가 학교를 바꾼다
2021	평화를만드는여성회	Women's Korea Peace Appeal
2023	비온뒤무지개재단	퀴어 페미니즘으로 대중문화 읽기: 케이팝을 퀴어링
2023	한국여성단체연합	From Local to Global : 성평등 의제로 지역과 국가, 글로벌을 잇다
2024	한국여성단체연합	제88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 심의 대응 활동
2024	비온뒤무지개재단	온 세상에 성평등 무지개: 찾아가는 퀴어 페미니즘 플랫폼
2025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국경을 넘는 온라인 성·인종착취 강간문화 대응을 위한 현지조사
2025	한국여성단체연합	베이징행동강령 30주년 기념 한국여성운동 역사 잇기

7. 활동가 인터뷰 (2026년2월)

07 활동가 역량 강화와 네트워킹: 운동을 지속하게 하는 힘

성평등 운동의 지속가능성은 의제의 날카로움만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운동을 만들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소진되지 않고 고립되지 않으며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재단의 활동가 역량 강화와 네트워킹 사업들은 바로 그 토대를 만드는 작업이었다. 혼자라고 느끼는 활동가가 동료들을 발견하도록, 소진된 몸과 마음이 다시 운동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사업들은 운동의 내용이 아니라 운동의 조건을 만드는 일이었다. 결국 운동을 지속하게 하는 것은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서로를 발견하고 지지하며 성장하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이 사업들의 역할이었다.

1. 신입·차세대 활동가 발굴과 당사자 주체화

2014년 일다는 30명의 청년 여성을 발굴하여 여성주의 저널리즘 강좌를 통해 자신의 삶을 기록하는 활동가로 육성했다. 같은 해 한국여성의전화는 ‘데이트 공작단’을 통해 20대 여성들을 성평등 활동가로 교육하여 캠퍼스 내 건강한 데이트 문화를 확산하는 주체로 세웠다. 이 두 사업이 공유하는 원칙은 하나였다.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운동의 주체로 청년 여성을 호명하는 것이었다.

2016년 행복누리는 지방 도시의 2년 차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역사·정책 교육과 의회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 가장 어려운 시기가 2년 차라는 것을 이 사업은 알고 있었다. 초반의 열정이

식고 현실의 무게가 느껴지는 그 시점에, 제도와 정책을 분석하는 전문적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활동가를 현장에 붙드는 방법이었다.

당사자가 직접 전문가가 되는 모델도 이 시기의 중요한 성과였다. 2016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이주여성 당사자를 성폭력 상담 전문가로 양성하여 ‘당사자에 의한 인권 보호’모델을 실현했다. 선주민이 가르치고 이주민이 배우는 고착된 위계 관계를 깨고, 평등한 소통과 연대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주여성을 위한 성폭력 상담원교육’의 신청을 접수하면서 주소지가 충북에 있는 ‘청주’라고 표기된 이주여성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신청자가 주소를 잘못 기재하거나 교육장소가 서울인 것을 모르고 신청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중략) 교육이 시작되면서 이분이 과연 끝까지 교육을 잘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 시작되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가장 성실한 학생으로 수업에 참여하였습니다. 9시부터 시작되는 교육에 참가하기 위해 새벽에 기차를 타고 매주 금요일 토요일을 서울과 충북을 통학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먼저 도착해서 모든 교육에 너무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먼거리가 힘들지 않느냐며 주변에서 걱정을 하기도 했지만 이주여성은 자신이 예전에는 출입국이나 경찰서에서도 통역을 하기도 했고 지금도 베트남어로 상담할 때 통역을 지원하기도 하면서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너무 절실히 느꼈다고 하면서 이주여성인 자신이 다른 이주여성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보다 더 전문성을 가지고 지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016성평등사회조성사업최종보고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위티의 청소년 페미니즘 강사단은 청소년 활동가들이 직접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강사로 나서는 경험을 통해 기획자로서 질적 성장을 이루었다. 배움의 수혜자에서 지식의 생산자로의 전환, 이것이 이 사업들이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변화였다.

☞ 여성재단이 함께 한 관련 사업 목록

연도	단체(시설)명	사업명
2014	일다	20대 여성의 노동과 정체성, 기록에 담다
2014	한국여성의전화	건강하고 평등한 연애를 위한 '데이트공작소'
2016	행복누리	여성주의인권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인권의 날개로 평등을
2016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여성에 의한 이주여성 인권보호” - 이주여성 성폭력상담원 양성프로그램
2020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우리의 말하기가 계속되도록
2021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우리의 말하기가 계속되도록

2. 전문 역량 강화 : 분석하고 기록하고 교육하다

활동가들이 현장의 문제를 직관으로 감지하는 것을 넘어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사회적 언어로 기록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을 갖추도록 돕는 사업들이 이어졌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는 전국 활동가들을 연결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젠더 관점으로 분석하는 전문가로 성장시켰다. 예산이라는 가장 건조한 행정 언어 속에서 성차별의 구조를 읽어내는 역량을 키운 이 사업은, 활동가들이 지방정부를 향해 근거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2014년 창원여성살림공동체와 2023년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지역 성평등 정책 모니터링 사업들은 신생단체 활동가들이 조례 제정 의견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정책을 비교 분석하는 실천 경험을 제공했다. 이 사업들은 정책이 전문가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시민이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영상 미디어 분야에서도 전문 인력 양성이 이루어졌다. 2014년 줌마네의 여성 영상 제작 집단 육성과 2018년 한국여성의전화의 여성주의 영상 번역가 교육은, 성평등 담론을 확산하는 데 필요한 미디어 역량을 운동 내부에서 키우는 시도였다. 국내에 부족했던 여성주의 영상 번역이라는 전문 영역을 개척하고 인력을 연결한 것은, 한국 페미니즘 콘텐츠가 세계와 소통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이었다. 2023년 사람과 평화의 장애인 성인권 전문 강사 심화 과정은 특수학급 현장의 구체적인 수요에 맞춰 강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했다.

☞ 여성재단이 함께 한 관련 사업 목록

연도	단체(시설)명	사업명
2014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성평등은 제도보다 참여와 실천으로 이뤄낸다
2014	줌마네	집나온여자들(가제)에 관한 영상물 제작을 위한 워크숍과 상영회
2015	성인지예산 전국네트워크	젠더브릿지 역할을 통한 성주류화 전략 실효성 강화
2016	한국성인지예산 네트워크	지역 성인지정책 참여활동 응원 플랫폼 구축사업 - '성 주류화는 경계가 없다'
2018	한국여성의전화	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여성인권 영화 보급 및 여성문화 인력 육성
2023	한국여성단체연합	From Local to Global : 성평등 의제로 지역과 국가, 글로벌을 잇다
2023	사람과 평화	'알성달성(알아가는 성인권, 달리보는 성인권)' 그림책을 활용한 장애인 성인권 교육

3. 세대 간 소통과 전국적 연대망 구축

활동가들이 서로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역량 강화였다. 2014년 부산여성사회교육원의 ‘싸가지 활동가 사전’은 신규 세대 활동가의 언어 차이를 이해하고 소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자책(e-북)이었다. 선배는 곧대로, 후배는 싸가지없는 존재로 서로를 오해하던 여성운동 내부의 세대 갈등을 정면으로 다룬 이 작업은, 운동 공동체가 스스로를 성찰하는 드문 시도였다. 세대 간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운동의 역사는 축적되지 않고 매 세대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이 사업을 만들었다.

“신규 세대의 격차를 좁히자는 모두의 공감은 토대로 진행된 선배활동가와 후배활동가의 만남에서는 약간의 의견충돌을 보이기도 했지만 사업의 말미 결과 발표회에서의 각자의 소회를 나누는 시간에서 선배활동가들은 자신 역시 그때 그 시절 싸가지 활동가였으며, 후배활동가들은 자신 역시 선배활동가로서 성장하게 될 것이라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였다는 생각들을 내놓았다.”

(부산여성사회교육원, 2014성평등사회조성사업최종보고서)

2016년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여성운동 비전 마련 ‘다.다.다’는 전국 단위 활동가들과 함께 지난 30년간의 운동 방식을 점검하고 조직 유형별 FGI와 워크숍을 통해 여성운동의 확장성을 고민했다. 이 과정에서 300페이지가 넘는 속기록을 남길 만큼 치열한 내부 논의를 거쳐 ‘공감과 변화’라는 키워드를 도출했으며, 새로운 운동 주체와의 연결을 위한 온라인 게시판 ‘디.마.페’를 오픈했다.

2017년 강남역10번출구와 2018년 범페미니네트워크워크,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의 유니브페미는 각각 2030세대 소규모 그룹들과 전국 대학 페미니스트 단체들을 연결하여 이슈에 공동 대응하는 연대체를 결성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백래시와 혐오에 맞서 집합적으로 대응하는 힘을 만든 것이었다. 2014년 인천여성영화제와 2017년 서울국제여성영화제가 구축한 전국 지역 여성영화제 네트워크는 각 지역에서 고군분투하던 영화제 활동가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상호 조력하는 체계를 만들었다.

“통영여성영화제 관계자들과 교육워크숍이 끝난 후 여성영화제에 관한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어 하셔서, 따로 자리를 마련해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올해 처음 여성영화제를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 이것저것 어려움도 많고, 해결해야 할 사항들도 많아 막막하던 찰나에 영화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서울국제여성영화제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다고 운을 떼셨다. 영화를 고르는일부터 관객홍보까지 영화제를 구성하는 핵심요소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워크숍이 끝난 후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천여성영화제 준비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리고 있다.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워크숍을 통해 서울국제여성영화제와의 네트워크를 쌓아 사천여성영화제를 준비하는 것을 보며 워크숍을 진행했던 사람으로서, 매우 뿌듯하고 보람을 느꼈다. 지역에서의 워크숍을 통해 발전, 보완해 나가는 단체들을 보며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다.”

(서울국제여성영화제, 2017성평등사회조성사업최종보고서)

이 모든 네트워킹의 흐름은 2024년 한국여성의전화가 주관한 전국여성폭력대응 현장활동가워크숍에서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수렴되었다. 204개 단체, 400여 명의 활동가가 모여 정부의 젠더폭력 정책의 퇴행에 대한 대응 전략을 비롯해 여성인권운동의 비전을 재정립하고 동료애를 확인한 이 자리는, 각자의 현장에서 고립되어 있던 활동가들이 자신이 거대한 운동의 일부임을 체감하는 경험이었다.

07 여성재단이 함께 한 관련 사업 목록

연도	단체(시설)명	사업명
2014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여성운동판언어 다시짜기 프로젝트 - 곧대활동가의 언어를 새로 쓰는 싸가지활동가사전
2014	인천여성영화제	페미니즘, 영화로 지역에 접속하라
2016	한국여성단체연합	다시, 성평등 사회를 향하여 다.다.다
2017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필름 아카이브를 통한 지역여성영화제 활성화 사업
2017	강남역10번출구	영-영 페미니스트 그룹 연대 "꿀핍유니온(가)" 결성 사업
2018	범페미니네트워크	범페미니네트워크 전국 네트워크 강화 사업
2020	유니브페미	2030 대학 페미 네트워킹
2021	유니브페미	2021 대학 페미 네트워킹
2024	한국여성의전화	우리, 연결된, 큰 걸음 - 여성폭력 대응 현장 활동가 전국 워크숍

4. 소진을 막고 수평적 문화를 만든다

활동가를 가장 먼저 소진시키는 것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고립과 위계인 경우가 많다. 이 사업들은 그 사실을 직시했다. 2014년 일하는여성아카데미의 '동행' 프로그램은 스트레스 대처와 마음 챙김을 통해 활동가들이 자신의 비전을 재점검하고 상호 지지하는 기반을 닦았다. 운동의 언어를 쉬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 사실은 운동을 지속하게 하는 조건이라는 인식이 이 사업의 출발점이었다.

“이번 사업은 5년차인 나에게도 절실했던 주제이기도 하다. 자기조직화는 현재 활동을 돌아보고 가치와 비전을 재점검, 재구조화 하는 과정이다. 열악한 환경과 업무스트레스로 지쳐있는 내게 현장을 떠나지 않고 가능한 치유가 필요했었다. (중략) 수용전념치료에서는 부정적 생각 다루기, 가치, 중장기 실행계획, 가치에 따라오는 장애물 극복하기의 내용이 실제로 도움이 되었던 내용이었다. 또한 함께한 여성활동가들과의 만남에서는 그들의 현재 고민, 비전 등을 나누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같은 처지임을 느끼며 힘을 받을 수 있었다.”

(일하는여성아카데미, 2014성평등사회조성사업최종보고서)

2016년 구로여성회는 일상에 치여 활동하는 풀뿌리 여성 활동가들에게 힐링 여행을 제공했다. 거창한 교육보다 함께 쉬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소통과 네트워크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이 사업은 보여주었다.

2021년 파도는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 문화를 가진 팀워크를 통해 개인 활동가들이 팀에 대한 멤버십을 갖고 전문성을 발휘하는 조직 모델을 실험했다. 위계 없는 조직이 더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워크북 '나우 파도'를 함께 만드는 과정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 여성재단이 함께 한 관련 사업 목록

연도	단체(시설)명	사업명
2014	일하는여성아카데미	여성활동가 자기조직화와 네트워크 만들기 "동행"
2016	구로여성회	성평등한 구로 만들기 네트워크 구축 - 풀뿌리 여성모임을 찾아서
2021	파도(FADO)	Acting Like FADO!

08

기록과 아카이빙: 기록되지 않은 것은 역사가 될 수 없다

기록 사업들이 공유하는 하나의 믿음이 있었다. 기록되지 않은 것은 역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역사가 되지 못한 것은 반복된다는 것.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재단의 지원을 받은 기록·아카이빙 사업들은 그 믿음을 실천으로 옮겼다. 공장에서 병을 얻은 여성 노동자의 생애, 집결지에서 살아간 여성들의 목소리, 마을을 지켜온 향토 여성의 이름, 광장에서 외쳤던 활동가들의 투쟁, 이 모든 것은 기록되지 않으면 그대로 사라졌을 것이다. 이 사업들이 남긴 76,925건의 데이터, 수천 장의 사진, 수백 편의 인터뷰, 수십 권의 아카이브북은 한국 여성운동의 지식 자산이자, 다음 세대가 더 나은 출발점에 설 수 있게 하는 토대다. 이 사업들은 기록 그 자체가 운동임을 보여주고 있다.

1. 여성의 노동과 노동운동사 기록

여성 노동의 역사는 오랫동안 공식 기록의 바깥에 있었다. 기업의 연혁에도, 노동운동의 연대기에도 여성 노동자들의 이름은 자주 지워졌다. 이 사업들은 그 지워진 자리를 되찾는 작업이었다.

2015년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는 7~80년대 마산수출자유지역에서 일했던 여성 노동자들의 구술을 채록하여 영상 다큐멘터리 '언니들에게 듣는다!'를 제작했다. 공식 역사가 기억하지 않은 그들의 투쟁을 영상으로 복원한 이 작업은, 현재의 여성 노동운동이 어디서 왔는지를 보여주는 뿌리의 기록이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줌마네는 여성들이 자신의 일 경험을 성찰하며 쓴 대안이력서와 영상 에세이를 모아 ‘여자들의 일 경험 모음집’을 발간했다. 전업주부, 경력단절 여성, 파트타임 노동자 등 기존의 이력서 형식이 담아내지 못했던 여성의 일 경험을 새로운 형식으로 기록한 이 작업은, 비가시화된 노동에 공적 언어를 부여하는 시도였다.

“처음에는 조금씩 어색해하던 참가자들도 차츰 글쓰기에 몰입하며 일 경험과 기억들을 글에 녹여 내기 시작했고, 수업 시간에는 서로의 이야기에 집중하느라 모두들 진지했다. 같이 분노하기도 하고 조언도 해주다가, 가끔 누군가 눈물을 터뜨리면 가만히 기다려 주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일터에서 만난 귀인과 악인들이 주제가였나, 아니면 사진 3장으로 이야기 만들기 숙제를 뒤늦게 해왔던가. 한 참가자가 자신의 글을 낭독하다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목에 메어 채 한 문단을 다 읽지 못하고 옆사람에게 낭독을 부탁했고, 처음에는 덤덤하게 읽던 옆사람에게도 눈물이 옮겨 갔다. 그렇게 글은 옆사람, 옆사람에게 전달되어 한 문단씩 읽혀지고 눈물도 함께 번져 나가, 낭독이 끝날 때쯤엔 강의실이 훌쩍임으로 가득 찼다. 사실 그리 슬픈 글은 아니었다. 읽으면서도 다들 “내가 왜 이러지?” 하며 자신의 눈물에 의아해했다. 뜻밖에 벌어진 감정의 공명 속에서, 글은 한 개인이 쓴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날 참가자들은 어딘가 개운해진 표정으로 돌아갔고, 그 이후로 각자의 글을 서로 읽어주는 게 새로운 풍조로 자리잡았다.”

(줌마네, 2018성평등사회조성사업최종보고서)

2025년 한국여성노동자회는 30년간 축적된 76,925건의 상담 데이터를 분석하여 한국 노동시장의 성차별 구조 변화를 실증적으로 기록했다. IMF 이후 근로조건 중심에서 모·부성권, 이후 성희롱·괴롭힘 중심으로 이동해 온 변화의 궤적은, 개인의 상담 기록이 사회 구조를 읽어내는 데이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같은 해 반올림은 전자산업 직업병 피해자와 유족 15명을 인터뷰하여 생애사 기록집 ‘회로를 이탈하다’를 출간했다. 산업재해를 젠더의 관점에서 기록한 이 작업은, 여성 노동자의 몸이 어떻게 산업의 소모품이 되었는지를 당사자의 언어로 증언했다.

“소규모로 진행되어 긴밀한 질의응답과 토론이 가능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도 남았다. 기록활동에는 기록자이자 실무자로 참여했다. 인터뷰를 한 직업병 피해자에게 검수 단계에서 글을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았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 기록 작업이 반올림에게뿐만 아니라 시간과 이야기를 내어준 구술자들에게도 어떠한 의미로 남기를 간절히 바랐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 안도감이 드는 순간이었다.”

(반올림, 2025성평등사회조성사업최종보고서)

☑ 여성재단이 함께 한 관련 사업 목록

연도	단체(시설)명	사업명
2015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언니들에게 듣는다! (부제: 여성노동자, 살아있는 역사들)
2018	줌마네	함께 만드는 대안 이력서 : 여자들의 일 경험 되살리기/기록하기
2019	줌마네	함께 만드는 대안 이력서2 : 여자들의 일 경험 기록하기/공유하기
2025	한국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 30년의 역사, 구조적 성차별과 여성노동자의 대응
2025	반올림	반도체, 전자산업 여성 노동자 건강권 확보한 활동과 기록

2. 반성매매 운동과 집결지 폐쇄의 역사화

사라지는 것들을 붙드는 작업은 집결지 기록에서 가장 절박하게 이루어졌다. 집결지가 폐쇄되면 그곳에 살았던 여성들의 흔적도 사라진다. 이 사업들은 그 흔적을 기록으로 남겼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2000년과 2002년 발생한 군산 성매매업소 화재 참사의 자료를 모아 백서를 발간하고, 성매매여성인권아카이브 홈페이지를 구축했다. 20년 전 불길 속에서 사망한 여성들의 이름과 기억이 공식 기록으로 남겨진 것이었다.

“우리는 계속해서 대명동, 개복동 백서를 만들어야 된다, 기록 사업을 남겨야 된다는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한테는 뒷덜미를 잡는 과제 영역인 거죠. 근데 그게 돈도 없고 시간도 못 내고 활동하면서 오래된 숙제였어요. 10주년 때부터 계속 해야 되지만 있는 이런 거였지요. 그런데 한 참이 미뤄진. 고민 끝에 그러면 아카이빙을 중심으로 한번 정리해서 여성재단에 응모를 해보자 이렇게 돼서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지원받게 되었어요”⁸

같은 시기 소녀의 집은 천호동 집결지의 사진 2,211장, 구술 자료, 지도 등을 수집하여 아카이브북 ‘사라진 천호동 집결지의 기억과 기록’을 출판했다. 지역 주민들과 예술가들이 협업하여 완성한 이 기록은 단순한 자료 수집을 넘어, 집결지가 존재했던 공간과 그 공간을 살았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역사로 전환하는 작업이었다.

“재단에서 도와주셨던 게 너무 컸고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런 지원이 없었으면 저희는 아예 꿈도 못 꿔를 것 같고, 특히 여성폭력 쪽은 기록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집결지를 그냥 다 없애고 싶어 하고 외면하고 싶어 하고 그냥 다 없었던 일로 다 묻어버리고 싶어 하는 장소인데 저희는 그래서 오히려 기록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 없었던 일로 그냥 묻어버리면 거기에 있었던 피해여성들, 그리고 그런 역사들을 제대로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심층인터뷰 사례11)

2025년 포항의 경북여성현장상담센터 새날은 집결지 폐쇄를 앞두고 피해 여성과 지역 주민 15명의 구술을 채록하여 기록집 ‘포항 대흥동 허(Her)스토리’를 발간했다. 성착취의 역사가 기록되어야 그것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믿음 위에 선 이 작업들은, 아카이빙이 곧 저항임을 보여주었다. 2026년에도 창원 서성동 집결지 기록화가 진행 중이다.

☑ 여성재단이 함께 한 관련 사업 목록

연도	단체(시설)명	사업명
2020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2000-2002 나비자리, 군산 성매매업소 화재참사 기록사업
2021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2000-2002 나비자리, 군산 성매매업소 화재참사 기록사업
2020	여성인권상담소 소녀의집	천호동의 여성인권역사 기록화사업 "기록, 시간을 기억하다"
2021	여성인권상담소 소녀의집	천호동의 여성인권역사 기록화사업 "기록, 시간을 기억하다"
2025	경북여성현장상담센터 새날	포항 대흥동 허(Her)스토리

3. 여성운동사와 페미니즘 담론의 아카이빙

운동의 기록은 다음 세대에게 운동의 언어를 물려주는 작업이다. 2019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반성폭력·여성노동 등 5개 분야의 운동 역사를 영상으로 제작하고 활동가 인터뷰 책자를 발간했다. 2018년 부산의 BRIDGE는 1985년부터 2005년까지 부산 지역 대학 여성운동 활동가 30명을 인터뷰하여 21년의 타임라인을 완성했다. 과거의 기록이 현재의 활동가들에게 운동의 뿌리를 확인하는 계기가 된 이 작업은 지역 여성운동사를 공식 역사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5년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베이징행동강령 30주년 시민사회보고서는 지난 30년간의 한국 여성인권 담론과 정책, 운동을 분석하여 국내외에 확산했다.

☑ 여성재단이 함께 한 관련 사업 목록

연도	단체(시설)명	사업명
2018	BRIDGE	특명, 언니를 찾아랏!
2019	한국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	페미니스트 토크쇼 정·반·합 : 세대별 페미니즘 운동, 종합을 향하다
2025	한국여성단체연합	베이징행동강령 30주년 기념 한국여성운동 역사 잇기

8. 활동가 인터뷰(2026년2월)

4. 지역과 문화, 삶의 기록

2020년 충북여성살림연대는 지역을 지켜온 향토 여성 10인의 삶을 구술 기록하여 여성생애구술사를 발간했다. 참여한 어르신들은 자신의 삶이 책으로 정리되는 과정에서 깊은 감동을 느꼈으며 이를 자서전으로 인정하며 자긍심을 회복했다고 증언했다. 남성 중심으로 쓰여온 지역사를 성인지적으로 재구성한 이 작업은, 기록이 당사자에게도 치유의 경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2021년 대구여성회는 대구 여성영화제 10년의 역사와 지역 여성 감독들의 인터뷰를 담은 아카이브집 '지역, 여성, 영화 다른 세상을 엿보다'를 발간하며 지역 여성 문화운동의 궤적을 기록했다.

2015년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한국전쟁기 민간인 집단학살 생존 여성과 월남 여성 1세대 등 고령 여성들의 목소리를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기록했다. 평생 한으로 남았던 이야기를 털어놓는 '발화'의 치유력을 확인한 이 사업은, 역사가 기록하지 않은 여성들의 경험을 공식 기록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이었다.

“이 사건'의 '당신'의 이야기, 자식에게도 한 번도 말씀 안하셨던 이야기들을 털어놓는 과정이 놀라웠고, 그 발언 속에서 점점 힘이 실리는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발화'의 힘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듣는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가지는지에 대해 가슴 깊이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 과정에서 빨리 많이 말씀하시느라 잘 못알아 들은 건 많이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다. 학살을 통해 부모 잃은 설움과 시집살이의 설움, 그 와중에 시누이에 미운 마음을 계속 쉴 새 없이 말씀하신 것도 있었지만...(실무자로서 시간압박이 느껴졌다.) 그런 발화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듣고 공감을 표했고, 할머니의 마음이 좀 풀어지고 치유되는 과정이길 바랐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 2015성평등한사회만들기지원사업최종보고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옥희살롱은 요양보호사와 가족 돌봄자의 경험을 심층 인터뷰와 사진으로 기록하여 포토에세이북을 발간하고 온라인 전시회를 열었다. 돌봄이라는 노동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록되지 않은 채 소비되어왔는지를 이 작업은 드러냈다. 기록되는 순간, 돌봄은 개인의 희생에서 사회적 의제로 전환되었다.

☑ 여성재단이 함께 한 관련 사업 목록

연도	단체(시설)명	사업명
2015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여성, 광복 70년·분단 70년을 말하다
2020	충북여성살림연대	이야기로 만나는 충북여성인물사
2021	대구여성회	대구경북 여성영화 열전 & 아카이브
2021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재난과 성별화된 돌봄위기를 통과하며
2022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재난과 성별화된 돌봄위기를 통과하며

성평등 지도 위 우리가 연결될 때

책임연구원 홍미희

공동연구원 강혜란, 이미경

기획 한국여성재단

디자인 디자인파인

발행인 장필화

발행일 2026년 6월 30일

www.womenfund.or.kr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T. 02-336-6364 F. 02-336-6459 E. womenfund@womenfund.or.kr H. www.womenfund.or.kr